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2 ~ 2016)

2011년 9월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귀 기관에서 의뢰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목 차

I. 계획 수립의 기초	5
1. 개요	5
2.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5
3. 추진 방향	6
4. 계획의 범위	7
5. 계획 수립의 방법 및 절차	8
6. 기대효과	9
II.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10
1. 제주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10
2.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18
3. 일본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34
III. 제주학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43
1. 조사의 설계	43
2. 조사 결과의 분석	44
3. 정책적 시사점	60

IV.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안	62
1.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배경	62
2. 비전 및 목표	64
3. 제주학의 개념	66
4. 제주학의 범위	70
5. 제주학의 연구 대상	71
6. 기본 방향	73
7. 제주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	76
V.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78
1. 사업별 투자계획(안)	78
2. 연구자체 사업(안)	79
3. 연구지원 사업(안)	80
VI. 행정·재정적 계획	84
1. 운영 조직	84
2. 재정투자 계획	87
VII. 정책제언	90
<참고자료>	93
부록 1.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위원회의 참석자 및 회의 결과	95
부록 2.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99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8

〈 표 목 차 〉

〈표 2-1〉 제주학 연구기관 현황	10
〈표 2-2〉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 및 유형	20
〈표 2-3〉 일본의 지역학 실시 단체 일람표	36
〈표 2-4〉 와세다[早稻田]대학 오키나와학[沖縄學] 강좌 프로그램 내용	38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3-2〉 제주학연구센터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운영방안	46
〈표 3-3〉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6
〈표 3-4〉 제주학 연구단체의 현안문제 내용	47
〈표 3-5〉 제주학연구단체의 우선순위별 현안문제 내용	49
〈표 3-6〉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내용	50
〈표 3-7〉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우선순위	52
〈표 3-8〉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 기능(주요 업무)	53
〈표 3-9〉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연구사업	54
〈표 3-10〉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연구자체 사업	56
〈표 3-1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57
〈표 3-12〉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58
〈표 3-13〉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59
〈표 5-1〉 사업별 투자계획(안)	78
〈표 6-1〉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85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학연구센터 협력 네트워크 체계	6
(그림 2) 계획수립의 절차	8
(그림 3)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과 목표	64
(그림 4)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단계	76
(그림 5)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전략	77

I. 계획 수립의 기초

1. 개요

가. 연구과제명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나. 기본계획 수립 근거

-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실천계획(2010. 10.)

다. 연구수행 기간

- 2011. 04.~09. (5개월)

2.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제주도 위상(位相) 정립

-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거점이므로 한·중·일 삼국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지역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자유도시 지향 속에 제주인의 문화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전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활성화

- 제주지역은 독자적인 전통문화(언어, 민속, 역사, 자연생태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지역성(locality)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체계적·종합적 연구가 부족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 제주인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요구됨.

□ 제주학 연구 확산을 위한 중심기구 역할

- 제주지역과 관계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체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국내외 제주학 연구자의 결집과 제주학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토대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이 필요함.
- 이에 제주학의 정립과 발전·확산을 위해 공공성을 띤 제주학 거점 연구 기관 설립이 필요함.

3. 추진 방향

-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적·종합적·융합적 연구 방향으로 추진함.
- 연구자 및 민간연구 단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 연구를 집적하고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제주학 관련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제주학의 확산 서비스 토대 마련 및 활성화를 도모함.
-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종합적 연구사업을 추진함.
- 제주학의 현실 활용·확산 및 미래 문화산업 방안을 도출함.
- 제주학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기반 환경을 조성함.



(그림 1) 제주학연구센터 협력 네트워크 체계

4.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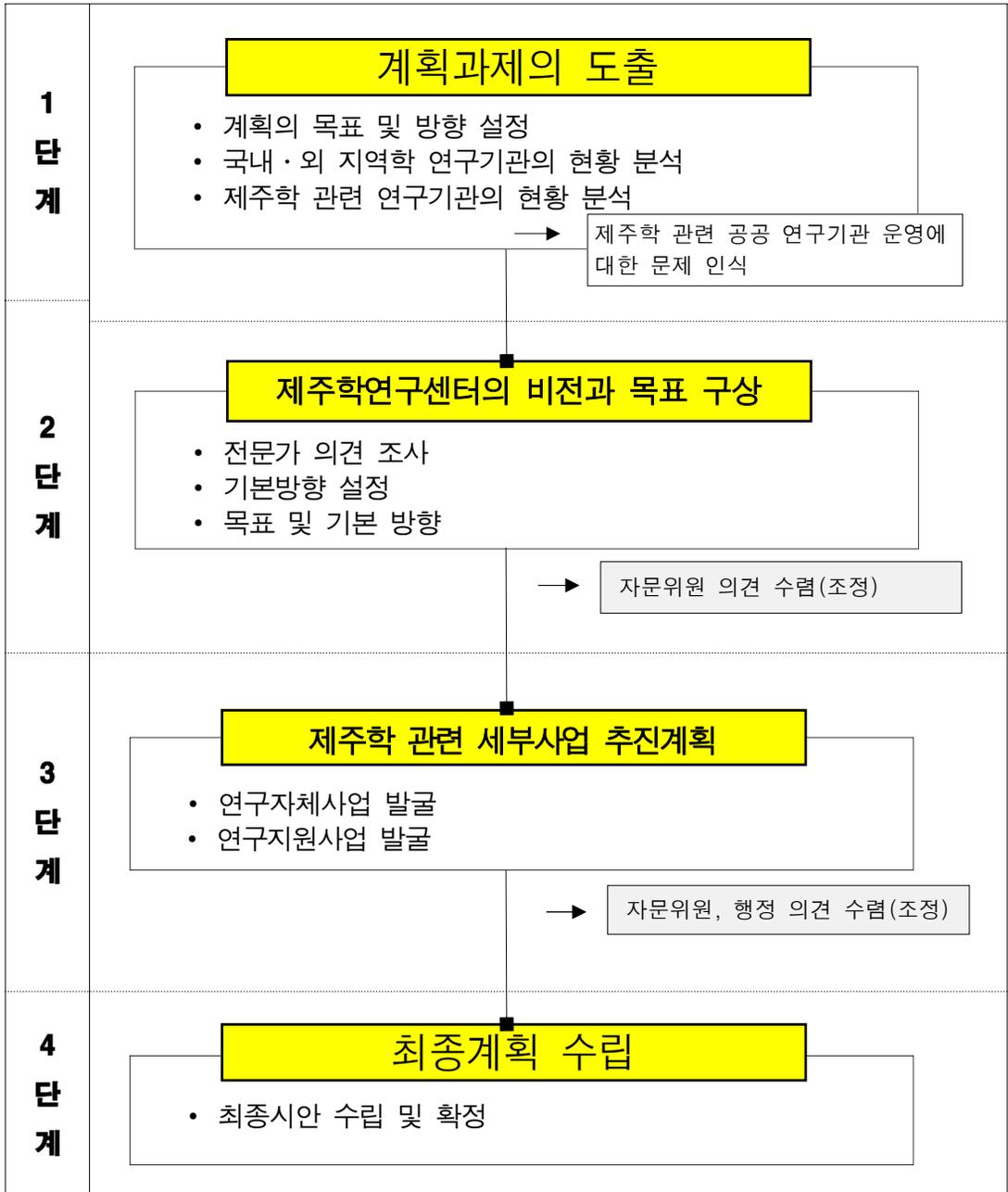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 : 2011년
- 시행 기간 : 2012년~2016년

다.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의 기초
- 지역학 연구기관 현황과 시사점
- 전문가 의견 조사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안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행정·재정적 계획

5. 계획 수립의 방법 및 절차



(그림 2) 계획수립의 절차

6. 기대 효과

-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제주학 연구인력 양성 지원의 기틀 제공
- 제주학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연구역량 결집과 구심체 역할 수행
- 제주학 연구 분위기 조성 and 활성화에 기여
-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 제주문화의 지역화 및 세계화를 위한 학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과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
-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 및 제주학 연구역량 제고

II.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1. 제주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가. 제주학 연구기관 현황

- 제주지역 내 제주학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 및 연구소는 대략 70여개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음.
- 현황 파악이 가능한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인문 분야 17개, 사회 분야 7개, 자연 분야 18개, 복합 분야 7개가 있음(<표 2-1> 참조).

<표 2-1> 제주학 연구기관 현황

번호	연구기관 명	분야	번호	연구기관 명	분야
1	제주4·3연구소	인문	26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자연
2	제주고고학연구소	인문	27	제주지질연구소	자연
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인문	28	제주화산연구소	자연
4	세계섬학회	인문	29	제주환경연구센터	자연
5	소암풍수지리연구소	인문	30	제주트레킹연구소	자연
6	제주학연구소	인문	31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자연
7	제주철학사랑방	인문	32	제주난대림연구소	자연
8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인문	33	제주카네기연구소	자연
9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인문	34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자연
10	제주도사연구회	인문	35	제주수산연구소	자연
11	제주소리연구소	인문	36	해양수산연구원	자연
12	평화연구소	인문	37	제주감귤연구소	자연
13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인문	38	제주동물위생연구소	자연
14	영주어문학회	인문	39	한라산연구소	자연
15	제주방언연구회	인문	40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자연
1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	41	제주대학교 해양과 환경연구소	자연
17	글로벌제주문화연구원	인문	42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자연
18	제주관광학회	사회	43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복합
19	제주경제개발연구소	사회	44	이여도연구소	복합

번호	연구기관 명	분야	번호	연구기관 명	분야
20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사회	45	제주학회	복합
21	제주복지미래연구회	사회	46	제주문화포럼	복합
2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사회	47	제주학연구자모임	복합
23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사회	48	제주녹색연구소	복합
24	제주관광학회	사회	4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복합
25	생태교육연구소	자연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명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제주학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

- 제주지역 소재 제주학 관련 49개의 연구기관 중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가능한 11개의 연구기관 현황을 분석하였음.
- 조사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기관은 전화를 이용해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은 민간연구소, 학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국·도립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 11개 연구기관은 민간연구소 7개, 학회 2개, 대학교 부설연구소 2개임.

1) (사)제주4·3연구소

- 기구명칭 : (사)제주4·3연구소
- 설립연도 : 2000년
- 설립목적
 - 4·3의 역사적 진실과 도민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를 통한 민주사회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기여가 연구소의 활동 목표임.
- 사업내용
 - 제주4·3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20권의 단행본과 각종 자료집을 발간해 왔음.

2)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기구명칭 :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설립연도 : 2009년
- 설립목적
 - 제주고고학연구소는 2009년 문화재의 조사연구, 보호, 보존관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 문화를 전승 보급하고, 문화재의 총체적인 보존관리 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매장문화재의 지표·발굴조사
 - 문화유산 관련 연구 및 학술보고서 발간

3)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기구명칭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설립연도 : 2007년
- 설립목적
 - 문화재의 보존·보호, 관리, 조사,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문화재의 연구 활동 및 자료 발간
 -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황조사
 -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문화재에 대한 자문 및 위탁수행
 - 문화재 조사인력 및 재교육
 - 기타 목적사업

4)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기구명칭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설립연도 : 2006년
- 설립목적
 -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학술적 접근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과 탐라문화권 정립의 방향성을 모색함.
- 사업내용
 -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조사 사업
 - 탐라권 정비 사업

5) (사)제주관광학회

- 기구명칭 : (사)제주관광학회
- 설립연도 : 1997년
- 설립목적
 - 관광분야 학술연구와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관광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 학회지 및 연구 간행물 발행
 - 학술발표회
 -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향의 모색
 - (사)제주관광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상호 교류 및 제휴
 - (사)제주관광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6) (사)제주환경연구센터

기구명칭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설립연도 : 1995년

설립목적

- 제주도민의 기본적 자산인 제주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정리하고 이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제주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값진 자산으로 물려줄 의무를 수행하고자 함.

사업내용

○ 연구사업

- 제주도내 육상과 해양의 동물 및 식물, 동굴, 지질, 기상, 경관 등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제주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다른 지역의 환경상태 및 관리 비교연구
- 제주도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경제적 활용 방안 연구

○ 교육 및 보전사업

- 자연환경지식 보급
- 제주환경대학 운영
- 연구, 조사 자료의 출판 및 영상화
-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 공유

7)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기구명칭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설립연도 : 2003년

설립목적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는 아열대권에 위치한 제주도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열대 및 아열대 작물의 생산기술의 연구를 통해

지역농업을 근원적으로 진흥 발전시킬 수 있는 학술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또한 축산을 포함한 동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 개발 및 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협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과 동·식물 자원의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의 개발을 통하여 농업 및 생물 산업 관련 학문적·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1967년 설립된 동물과학연구소와 1981년 설립된 아열대 농업연구소가 통합하여 2001년에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 2003년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사업내용

- 교수와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의 연구·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 제주도 지역농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 수행
- 농업기술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
- 연구보고서 발간
- 농업기술 개발과 관련된 학술회의 개최
- 열대 및 아열대 작물의 유전자원 확보 유지
- 제주도 자생 유용식물 개발에 관한 연구
- 동물영양 사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초자원에 관한 연구
- 축산경영에 관한 연구
- 동물육종 개량과 번식 상황에 관한 연구
- 동물의학에 관한 연구

8)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기구명칭 :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설립연도 : 2004년

설립목적

-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생태·문화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제주 사회에 제시·반영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 활동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 『한라산 총서』 발간
-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발간
- 매해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9) 제주학회

기구명칭 : (사)제주학회

설립연도 : 1978년

설립목적

- 제주학회는 1978년에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표본으로서 제주도 연구를 진흥시키고, 관련 학문 간의 상호 협조 및 지역연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사업내용

- 『제주도연구』 매해 2집 발간
- 매해 2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10) (사)제주문화포럼

기구명칭 : (사)제주문화포럼

설립연도 : 2000년

설립목적

- 제주문화포럼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문화 발전을 계도하여 올바른 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지향함.

- 사업내용
 - 문화정책사업
 - 문화교양사업
 - 문화기획사업
 - 도서출판사업
 - 연구사업
 - 회원사업

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기구명칭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설립연도 : 1967년
- 설립목적
 -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방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제주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또한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각종 의제를 제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미래 전망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설립배경의 하나임.
 -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제 영역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년 3월 제주대학교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인가됨.
- 사업내용
 - 『탐라문화』와 『탐라문화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해마다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음.

다. 제주학 연구기관의 시사점

- 제주학 연구기관으로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 걸쳐 설립되었으나, 인문분야와 사회과학분야는 민간연구소와 학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자연과학분야는 국·도립 연구소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인문과 사회과학 분야 관련 연구기관은 자연과학에 비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인문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대학교 부설 연구소이거나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임. 반면, 민간연구소인 경우 시·발굴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소 이외의 연구소들은 대체로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임.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소들은 특히 연구 전담 인력이 적어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구원이나 연구소장을 겸직하는 민간연구소들이 다소 있음.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재편(2006. 07. 01.)되었으나 그동안 제주도정은 제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 개선·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음.
-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들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제한된 예산 및 연구인력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제간 혹은 융합 연구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함. 다만, 대학 부설 연구소들은 필요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2.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가.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특징

- 국내 지역학 연구는 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를 그 공간범주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들 지역학은 지방행정조직이 수립된 이래 전통적으로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하여 지역구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에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었음.

- 현재 전통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의 기능을 유지해 왔던 주요 도시(서울, 인천, 부산 등)가 국내 지역학을 선도하고 있는 현실임.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전통적인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역 명칭을 딴 지역학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전주학, 원주학, 강릉학 등).
- 현재 국내 지역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의 발전연구원이 대부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대학 내 부설연구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이는 지역학이 지역의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결과임.
-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에서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또는 연구소의 특성상 도시학과 문화정책 개발 등에 비중을 두고 있음. 이는 지역학 연구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역의 현실적인 요구와 맞물려 있음.
- 이는 지역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지역학 연구의 중점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학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음. 지금까지 지역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거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그 범주가 결정되기도 하였음.
- 지역학의 참여자는 전문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지역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지역학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연구 지원 사업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지역학의 성공 여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에 의한 자발적 운영에 있다고 판단됨.

나.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연구소가 운영주체인 지역학으로는 ‘서울학, 경기학, 인천학, 강원학, 충북학, 경북학, 부산학, 울산학, 전주학, 호남학’ 등이 있음. 이들 지역학은 대부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발전연구원에서 조직하거나 대학에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들 지역학은 최소 전임연구원 4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직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음. 또한 지역학 자료실을 운영하여 각 지역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지역학 연구는 각 지역의 역사·문화·민속 등 종합적 연구, 문화원형 발굴과 활용방안, 문화정책 개발과 문화경쟁력 향상 등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지역 자료센터 운영, 시(도)사 편찬 기능 수행, 지역 관련 용역 사업 수행, 연구문헌 목록집 발간, 연구논총 및 기획연구 발간은 물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

<표 2-2>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 및 유형

권역	지역학	연구기관	설립	소속기관	유형
중부권	서울학	서울학연구소*	199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연구소
	원주학	매지학술연구소	199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 연구소
	인천학	인천학연구원*	2002	인천시립대학교	대학 연구소
	강원학	강원학연구센터*	2003	강원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경기학	경기학연구실	2005	경기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충북학	충원문화연구소	1997	충북대학교	대학 연구소
		충북학연구소*	1999	충북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충청학	충청학연구소	2001	한남대학교	대학 연구소
		충청문화연구소	2003	충남대학교	대학 연구소
		충청학연구부	200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전학	대전학연구회	2004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권역	지역학	연구기관	설립	소속기관	유형
영남권	영남학	영남문화연구원	2001	경북대학교	대학 연구소
	울릉학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경주대학교	대학 연구소
	부산학	부산학센터*	2002	신라대학교	대학 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2003	부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학	대구경북학센터*	2005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울산학	울산학연구센터*	2005	울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경남학	경남학연구팀	2005	경남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호남권	전북학	전라문화연구소*	1997	전북대학교	대학 연구소
	호남학	호남문화연구소*	1963	전남대학교	대학 연구소
		호남학연구소	2001	목포대학교	대학 연구소
		호남학연구단*	2005	전남대학교	대학 연구소
	전주학	전주역사실	2002	전주역사박물관	지방자치단체
광주학	평생교육원	2003	전남대학교	대학 연구소	
제주권	제주학	제주학회	1997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제주학연구소	2004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주 : 2006년 11월 1일 독도·울릉학연구소(전 울릉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며, 제주지역은 다른 장에서 다룸.

다.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

-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을 보면 중부권 5개소, 충청권 6개소, 영남권 7개소, 호남권 6개소, 제주권 2개소 등 26개소가 있으며,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가능한 11개의 연구기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음.
- <표 2-2>에서 보듯이 26개소 중 직·간접적으로 자료조사가 가능한 11개 기관의 현황을 정리했음.
- 조사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기관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하였음.

1) 중부권

(1) 서울학(Seoul Studies)

기구명칭 : 서울학연구소

운영주체 : 서울시립대학교

설립연도 : 1993년

설립목적

- 1990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서울의 뿌리를 찾고 문화의 동질성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국내 최초로 지역학연구소를 설립하였음. 서울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연구지원과 학술행사를 통해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 서울시 행정당국에 역사·문화·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서울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

- 서울지역의 고고학 및 한국 고대사~근현대사 연구
- 서울의 건축, 도시계획, 도시조직, 교통수단, 도시경관, 조경 연구
- 조선시대 시문학, 근현대 서울을 소재로 한 문학 연구
- 서울 방언 연구
- 서울의 가족, 신분, 인구, 사회조직 연구
- 서울에서 유행한 음악과 연희, 서울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연구
- 서울지역의 민속, 통과례, 세시풍속 연구
- 조선시대 고지도, 근현대 서울 지도 및 지리 연구
- 서울의 행정편제, 행정조직, 운영체계 연구
- 서울의 재정, 상공인, 상공업, 경제조직, 경제 운영방식 연구

주요 연구 성과

- 공개특강, 교실강의 및 현장탐방 실시 등 서울시민 문화대학 운영

- 매년 소수의 연구자에게 소정의 연구비 지급 등 연구지원 사업 수행
 - 총서, 연구저널, 연구총서, 교양총서, 사료총서, 번역총서, 미디어총서, 목록집, 색인집 등 발간
 - 탐사 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산재한 서울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등 사료탐사 수행
 -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 정례발표회, 서울학 세미나, 대담 등 학술행사 개최
 - 학술용역 수행
 - 역사자료 발굴 및 정보자료실 운영
- 향후 계획
- 예산지원 방식의 변화로 인한 연구원 업무 재조정
 - 연구소 공간 재배치(연구 공간, 회의 공간 분리)
 - 대학의 활성화 사업 및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진행

(2) 인천학(仁川學)

- 기구명칭 : 인천학연구원
- 운영주체 : 인천시립대학교
- 설립연도 : 2002년
- 설립목적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사회 연구
 -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에 관한 연구
 - 지역 문제에 대한 조사·평가·분석
 - 인천광역시 및 지역 소재 기관·단체의 자문
 - 특수 연구계획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및 연구의뢰 수탁
 - 기타 연구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주요 연구 성과

- 연구기반 및 연구지원 사업 수행
- 학술지 및 분야별 전문 간행물의 발간
- 총서 및 자료총서 발간 사업
- 학술발표 및 과제별 토론회 등 학술행사 개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향후 계획

- 연구논문 수준향상 방안, 인천학 연구 및 인천학 총서 지원, 인천학세미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연구방법론 심화, 연구주제 확대, 인천시립대학교 교양 과목 개설, 인천학연구원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안 마련, 발전계획 수립

(3) 강원학(江原學)

기구명칭 :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주체 : 강원발전연구원

설립연도 : 2000년

설립목적

-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연구 성과를 보급하는 동시에 도내의 다양한 지역학 연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주요 연구 분야

- 강원도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함.
-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 정립과 역사 및 문화를 연구함.

주요 연구 성과

- 연구자체 사업
- 연구지원 사업
- 강원학 총서, 강원학 학술총서, 강원학 연구 등 발간사업
- 강원학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 향후계획
 - 자료정보화 사업
 - 근현대사 사료 수집
 - 현대사 구술자료 채록
 - 문헌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사 자료 수집

2) 충청권

■ 충북학(忠北學)

- 기구명칭 : 충북학연구소
- 운영주체 : 충북발전연구원
- 설립연도 : 1999년
- 설립목적
 - 지역학 연구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사 편찬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전반의 문화정책 연구를 비롯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충북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함.
- 주요 연구 분야
 - 충청인의 정신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지역 향토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진흥 연구
 - 중원문화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연구
 - 충청북도 관련 사료 조사 및 수집
 -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 연구 및 문화예술 정책자료 수집과 평가
- 주요 연구 성과
 - 연구지 간행
 - 연구총서, 교양총서, 테마기행, 번역총서, 자료총서 등 총서 간행
 - 심포지움, 워크샵, 토론회, 초청강연회 등 학술행사 개최
 - 충북학 관련 사료 조사 및 수집

- 향후 계획
 - 자체 및 외부 중장기 연구용역 과제 발굴
 - 충청북도 조사·연구사업 발굴
 - 충청북도 시군 및 중앙 연구지원 부서를 통한 프로젝트 대상 확대
 - 도내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지원 사업 추진

3) 영남권

(1) 경북학(慶北學)

- 기구명칭 : 대구경북학센터
- 운영주체 : 대구경북연구원
- 설립연도 : 2004년
- 설립목적
 -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지향적인 대구경북학을 정립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하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정신문화 재조명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
- 주요 연구 분야
 - 대구경북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개발, 민속 등 연구
 -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의 전통성과 역동성 탐구
 - 대구경북의 지역문제에 대한 조사·평가·분석
 - 대구경북학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
- 주요 연구 성과
 - 주민의식 조사사업
 - 대구경북 학문 수도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대구경북학연구원 연구지원 논문 공모사업 지원

- 대구경북지역 대학원생 학술모임 연구지원 사업
- 대구경북지역 대학원생 연구논문 제안 공모사업 지원
- 학술지 및 분야별 전문 간행물의 발간사업
- 대구경북 지역학 연구센터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학술발표 및 과제별 토론회 개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향후 계획

- 대구경북의 지역주민 의식 및 정체성 조사 연구
- 대구경북의 지식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학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확대, 영남지역 지역학 연구센터간의 교류협력 확대, 대구경북지역 문화원과 교류협력 확대, 대구경북 지역학 연구회 발족을 통한 지역학 연구 학자간의 교류 확대

(2) 부산학(釜山學)

□ 기구명칭 : 부산학연구센터

□ 운영주체 : 부산발전연구원

□ 설립연도 : 2003년

□ 설립목적

- 부산지역의 역사·문화·예술·전통과 지정학적 특수성 등에 대한 학문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 내 현실적인 역동성을 접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일구어내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부산학 연구의 패러다임 및 방법론 정립
- 부산지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연구
- 부산이 가진 고유한 지역성의 발굴
- 지역에 내재된 고유가치의 발견 및 규명

- 지역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조직 모델의 개발
- 부산 뿌리를 찾아 부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미래 비전 제시
- 지역발전 논리의 정립
- 부산 문화정책 연구

□ 주요 연구 성과

- 연구논총, 교양총서, 자료집, 국제화 연구, 기획 연구 등 발간사업
- 부산학 박람회 개최, 정보자료실 운영, 시민강좌 개설 등 연구조성 사업
- 교과목 개설 지원, 교재 발간, 석·박사 논문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책자 지원, 성과물 판매 등 연구지원 사업
- 타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협력 추진

□ 향후 계획

- 기존의 연구사업(연구논총, 교양총서, 기획연구) 위주로 연구를 진행
- 부산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센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
-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부산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부산을 알아가고, 부산 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둔

(3) 부산학(釜山學)

□ 기구명칭 : 부산학센터

□ 운영주체 : 신라대학교

□ 설립연도 : 2002년

□ 설립목적

- 학내·외의 개별적 연구역량과 성과를 체계화하여 사회적 지식의 축적에 이바지, 대학과 사회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학문적 지식 등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서 기여, 지역을 세계와 소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주요 연구 분야

- 부산의 정치·행정·경제·사회·역사·문화·전통·예술 등 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함.
- 부산의 지형·기후·해양·식생 등 자연환경 분야를 연구함.
- 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부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조류를 부산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지금까지 분산되어 이루어져 오던 부산에 관한 연구들이 집결하고 새로운 연구주제와 과제를 찾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주요 연구 성과

- 학술심포지움 개최
-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최
- 논문집 발간
- 낙동강 관련 세미나 개최

향후 계획

- 단순한 역사·문화 등 민속학적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의 현안 과제 제기 및 대안 제시로 타 지역연구소와의 차별화 전략 시도
- 다른 지역학 연구기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연구 체제도 강화
- 해외지역 연구소와의 교류 추진
- 한국의 주요 지역문제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사업계획들을 추진

(4) 울산학(蔚山學)

기구명칭 : 울산학연구센터

운영주체 : 울산발전연구원

설립연도 : 2006년

설립목적

- 울산지역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사회적·자연적 요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포착해냄으로써 울산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주요 연구 분야

- 울산학 연구의 패러다임 및 방법론 정립
- 울산지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별 연구
- 울산이 가진 고유한 지역성의 발굴 및 규명

주요 연구 성과

- 정보자료실 운영, 학술행사 개최, 연구문헌 목록집 발간, 자료 D/B 구축,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 울산시민 의식조사, 타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협력, 연구인력 확보 등 연구조성 사업
- 연구논총, 기획연구 등 연구발간 사업
- 울산시민대학 설립, 초중고 교육용 교재 발간 지원 등 교육사업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자료집(연구논총, 기획연구 등) 발간
- 정보 자료실 운영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시민강좌, 학술행사 개최 등) 교육사업 추진
- 국내·외 타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

4) 호남권

(1) 전북학(全北學)

기구명칭 : 전라문화연구소

운영주체 : 전북대학교

설립연도 : 1997년

설립목적

- 전라도의 역사·선사·문화재·예술·언어·문학·민속·종교·사상·관광·현대문화·여성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을 조사 연구·분석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연구 분야

- 전라도 지역의 역사·문화·사상·문학·민속·사회·관광 등 조사·연구
- 문화재 및 전적과 고문서 등의 조사·발굴·수집·연구
-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협동 사업과 봉사 활동
- ‘정읍사 문화제’의 평가분석과 개선방향 등의 연구

주요 연구 성과

-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 학술연구 용역 수행
- 공개강좌, 자료 강독회, 연구 발표회, 토론회 등 학술회의 개최
- 학술지·연구서·보고서·자료집 등 발간
- 전라문화 총서, 판소리 총서, 혼불 학술총서, 연구서 및 보고서 등 발간 사업

향후 계획

- 전라문화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문화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과 봉사활동도 수행하여 전라도를 대표하는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2) 호남학(湖南學)

기구명칭 : 호남문화연구소

운영주체 : 전남대학교

설립연도 : 1963년

설립목적

- 장기적으로 건설한 토대 위에서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호남학에 관한 이론적 생산 근거지로 기능하며, 학문적 창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주요 연구 분야

- 호남의 문학·민속·역사·경제·철학·사회사·건축·음식문화 등 연구
- 호남지역 문화 아카이브 구축
- 호남지역 고전 문헌 해제 및 번역
- 호남문화 전문가 배출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사업

주요 연구 성과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대학부설 중점연구소 사업 수행
- 기초학문 인문학 지원사업 수행
- 용역 수주
- 호남문화 관련 각종 연구총서, 학술총서, 학술지 등 발간사업
- 호남문화 관련 각종 학술대회 개최

향후 계획

- 호남문화 관련 전문화·특성화 또는 학제간의 중심연구소로 유도
- 전임연구 인력을 연구소 전임교수로 유도
- 호남지역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과정 개설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동
- 연구소의 자립을 위한 기금 및 연구비 확보

(3) 호남학(湖南學)

기구명칭 : 호남학연구단

운영주체 : 전남대학교

설립연도 : 2005년

□ 설립목적

- 호남에 관한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족과 음식 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호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을 세계로 발돋움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함.

□ 주요 연구 분야

- 호남지역에 정통한 장인적 학자의 지속적 양성과 지원
- 고문헌 자료의 지속적 수집·발굴·조사·정리·분석
- 호남지역 관련 자료의 집성 및 해제·번역·연구

□ 주요 연구 성과

- 총서 저술 지원 사업
- 박사학위논문 간행 지원 사업
- 연구단체 지원 사업
- 광주·전남지역 중심의 호남사 연표 제작
- 광주·전남지역의 가사 목록집 발간 사업
- 광주전남지역의 호남학 관련 인물 DB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인물정보센터 구축

□ 향후 계획

- 오랫동안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해 온 학내외 연구진과 연구소 및 연구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

라.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시사점

-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함.
 - 서울 및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시민대학을 통해 지역학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해당 지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애乡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지역학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기업이나 시민들의 기부를 통

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 연구의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학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연구기능 수행이 부족함.
 - 중·장기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학계 등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전담 연구인력이 부족함.
 - 체계적인 연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구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미비함.

3. 일본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1980년대에, 중국은 1990년대에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본 지역학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가. 일본 지역학의 개념

- 현재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아오모리학(靑森學), 에도도쿄학(江戸東京學), 오사카학(大阪學) 등 지역 명칭을 붙여서 지역학이라고 부르고 있음.
- 지역학은 특정의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그 지역의 역사나 지리, 경제, 문화 등을 종합적·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를 말함.
-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 관해 주민이나 대학 등이 자기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상(事象)을 조사·연구하고,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실제로 마을을 걸으면서 거기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지역학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의 자립화 요청이나 지역분권의 진전, 시(市)·정(町)·촌(村)의 합병, 주민자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개성화를 지향하기 위

해 지역 만들기라는 틀 속에서 지역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에는 보다 나은 지역 만들기를 지향한 지역검정(ご当地検定), 에코투어리즘(ecotourisme), 에코뮤지엄(ecomuseum) 등 지역학을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고, 다채로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주민, 대학, 기업, NPO(Nonprofit Organization ; 비영리 조직), 행정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많은 시민대학이 생애학습 사업으로 또는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지역의 관광이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지역학에 대해 ‘지역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님.
- 실제 연구대상으로 삼는 지역도 현(縣)이나 시정촌의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크게 동북(東北)이라는 구역, 그리고 보다 작은 집락(集落) 등을 구역으로 하는 곳, 이외에 지모토(地元)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권역을 다른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 외에 지역명을 붙이지 않고 지역을 소재로 한 조사·연구나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많을 것으로 판단됨.

나. 일본 지역학의 연구기관 유형

- 최근 요코하마학(横浜學), 야마나시학(山梨學), 나가사키학(長崎學) 등 지역의 이름을 붙인 지역학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일본 각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산업, 자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매력이나 가능성을 발굴하려는 것임.
- 일본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실시 주체는 현(縣)이나 시정촌의 행정,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NPO 등의 시민단체 등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이들 지역학은 독자적인 목적이나 방법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봄.

다. 일본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

<표 2-3> 일본의 지역학 실시 단체 일람표

	명칭	실시단체 및 담당자	지역
1	江差地域大學	江差地域大學	北海道
2	八戶學	八戶學代表 島守光雄	青森縣
3	つがる學	つがる衆立大學	青森縣
4	あおもり學	青森縣民カレッジ 青森縣総合社會教育センター	青森縣
5	ふるさと發見八戶學		青森縣
6	あきた學	秋田縣生涯學習推進本部、秋田縣教育委員會	秋田縣
7	東北學		岩田縣
8	街づくりれいれい塾	街づくりれいれい塾	岩田縣
9	遠野常民大學	遠野常民大學 遠野物語研究所内	岩田縣
10	宮城縣民大學	宮城縣教育廳 生涯學習課	宮城縣
11	東北學	東北芸術工科大學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山形縣
12	いわき地域學會	いわき地域學會	福島縣
13	新津市民大學	新津市教育委員會	新潟縣
14	坂井輪地域學	坂井輪地域學研究會 新潟市坂井輪地區公民館	新潟縣
15	新潟ふるさと學	新潟縣立生涯學習推進センター	新潟縣
16	信州學連絡協議會	八十二文化財団	長野縣
17	とちぎ學	栃木縣教育委員會事務局 生涯學習課	栃木縣
18	ふるさと日光學	日光市教育委員會事務局 社會教育課	栃木縣
19	茨城縣民大學 (茨城縣弘道館アカデミー)	茨城縣水戸生涯學習センター	茨城縣
20	江戸東京フォーラム	財団法人 住宅總合研究財団	東京都
21	多摩學會	中央大學法學部 今村都南雄研究室	東京都
22	川崎學	川崎市 川崎市民アカデミー	神奈川縣
23	横浜學	横浜學連絡會議、浜銀産業文化振興財団	神奈川縣
24	神奈川再發見コース	神奈川縣教育廳 教育部生涯學習文化財課	神奈川縣
25	横浜學を考える會		神奈川縣
26	鎌倉學	鎌倉學塾	神奈川縣
27	東京湾學會	江戸川大學 佐藤毅研究室	千葉縣
28	掛川學	掛川市教育委員會 生涯學習課	靜岡縣
29	靜岡縣民カレッジ	靜岡縣教育委員會 社會教育課	靜岡縣
30	靜岡地域學會	(社)靜岡政経研究會 地域・産業研究所	靜岡縣
31	清見潟大學塾	清水市中央公民館	靜岡縣
32	山梨學	山梨縣生涯學習推進センター	山梨縣
33	新山梨學	山梨學院生涯學習センター	山梨縣
34	美濃學	岐阜縣社會教育課	岐阜縣
35	大阪學	財団法人 大阪都市協會	大阪府
36	大阪學 (文化サロン・なにわ塾)	文化サロン・・・(財)大阪府文化振興財団、 なにわ塾・・・大阪府(財)大阪府文化振興財団へ委託	大阪府
37	伊丹學	伊丹市	兵庫縣
38	熊野學友の會	縣民行政部 總務課	和歌山縣

	명칭	실시단체 및 담당자	지역
39	石川縣民大學校	生涯學習課	石川縣
40	金澤學術硏究會	純民間団体、金澤美術工芸大學	石川縣
41	コロンブス計畫	財団法人 富山縣未來財団	富山縣
42	淡海生涯カレッジ	縣内5市の生涯カレッジ實行委員會	滋賀縣
43	兵庫ふるさと創生塾	兵庫縣生活創造課生涯學習振興室	兵庫縣
44	神戸學硏究會	神戸新聞情報科學硏究所	兵庫縣
45	兵庫學硏究會	神戸新聞情報科學硏究所	兵庫縣
46	播磨學硏究所	姫路市文化センター内 播磨學硏究所	兵庫縣
47	加美ふるさと講座	加美ふるさと塾	兵庫縣
48	但馬學硏究會	(株)キャメル事務局	兵庫縣
49	淡路島デザイン會議	淡路島デザイン會議事務局	兵庫縣
50	廣島縣北學	過疎を逆手にとる會(通称:カンサカ)	廣島縣
51	未來をひらく鳥取學	鳥取縣民カレッジ本部(鳥取縣立生涯學習センター)	鳥取縣
52	德島縣民カレッジ	德島縣教育委員會 生涯學習課	德島縣
53	だれでもなんでもゼミナール	德島學遊塾運動推進委員會	德島縣
54	阿波學	德島縣立図書館	德島縣
55	佐賀ふるさと學	佐賀縣立生涯學習センター(アバンセ)	佐賀縣
56	伊万里學	伊万里市教育委員會生涯學習課	佐賀縣
57	長崎歴史文化協會	長崎歴史文化協會	長崎縣
58	長崎學會設立懇話會	長崎縣教育廳 文化課	長崎縣
59	高等學校長崎學普及事業	長崎縣教育委員會 所管課・文化課	長崎縣
60	小林おもしろ發見塾	小林市教育委員會社會教育課	宮崎縣
61	しまね學講座	島根縣生涯學習推進センター	島根縣
62	阪神學	阪神學本部 河内厚郎事務所	兵庫縣
63	四國遍路の學術整理	愛媛縣生涯學習センター 硏究課	愛媛縣
64	三重縣民カレッジ	三重縣生涯學習センター	三重縣
65	飯豊學	飯豊町教育委員會	山形縣
66	大石田學	大石田町生涯教育センター	山形縣
67	鶴岡學	鶴岡市教育委員會	山形縣
68	天童學	天童郷土硏究會	山形縣
69	南陽學	南陽市教育委員會	山形縣
70	西村山地域史硏究會	寒河江市教育委員會	山形縣
71	山形學	山形縣生涯學習センター	山形縣
72	ゆぎ學歴史文化塾	遊佐町教育委員會 ゆぎ學歴史文化塾運營委員會	山形縣
73	西川少年少女自然塾	西川少年少女自然塾運營委員會	山形縣
74	もがみにおける地元學(地域連携講座 最上町實行委員會)	滿澤小教育推興會メンバー及最上町地區 青年層	山形縣
75	山形縣立小國高等學校 總合學習	山形縣立小國高等學校	山形縣
76	森の人講座實行委員會	「森の隠れ家」つるおかユースホステル	山形縣

· 출처 : (財)山形縣生涯學習文化財団(2000), 『全國地域學ハンドブック』를 참조하여 작성함.

라. 일본의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과정

- 와세다[早稻田]대학은 류쿠·오키나와[琉球·沖繩]연구소를 만들어 2006년 부터 종합강좌 오키나와학[沖繩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역사·언어·환경·정치·법·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음.

<표 2-4> 와세다[早稻田]대학 오키나와학[沖繩學] 강좌 프로그램 내용

2011년도 와세다(早稻田)대학 종합강좌(沖繩學) 프로그램			
전 기	오키나와(沖繩)학의 형성과 구축	후 기	오키나와(沖繩)학의 현재
	『沖繩學 입문』 해설		『沖繩學 입문』 해설
	「沖繩學」의 시선		沖繩의 음악과 예능
	琉球·沖繩의 역사와 언어		琉球왕국의 역사와 의례
	영화 상영		琉球무용의 역사와 실천
	웃음과 공동체		沖繩여성사
	沖繩의 환경문제와 환경문화		신여(神女)조직과 오모로의 세계
	전후 기지(基地)문제의 경위		「おもろさうし」-沖繩지방의 고대가요
	沖繩와 헌법		영화 상영
	기지의 적지(跡地)이용 문제		선도(先島)의 고고학과 沖繩문화
	전쟁으로부터 沖繩를 생각한다.①		沖繩와 이민
	전쟁으로부터 沖繩를 생각한다.②		沖繩전후 정치사
	沖繩전후 사상 : 반복귀의 회상 등		
	오키나와에서 아시아로		
2010년도 와세다(早稻田)대학 종합강좌(沖繩學) 프로그램			
전 기	오키나와(沖繩)학의 형성과 구축	후 기	오키나와(沖繩)학의 현재
	「沖繩學」의 초대		「沖繩學」의 초대
	沖繩고요(古謠)의 채집·연구·창조에 대한 과제		琉球孤의 음악 개설 -奄美·沖繩·先島の 노래를 청취
	古琉球와 해역 아시아		琉球무용의 전승-모방과 창조
	영화 상영		민족 지적(誌的) 비교란 무엇인가 -유다(종족)와의 만남으로부터 생각한다.
	琉球 근현대사와 「본토화」 / 「국민화」 정책		일청·일로전쟁의 전장과 근대 沖繩인의 「國家死」
	沖繩의 자연과 관광		방언 논쟁 재고-현재가 물어보는 근대 沖繩의 문화와 개발
	沖繩 수학여행과 평화학		또 하나의 沖繩-宮古·八重山문화권
	미군기지가 沖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영화 상영
	세계의 섬들에서 본 沖繩諸島の 선사시대		琉球의 왕권의례와 首里·久高島
	언어 정책과 포스트 식민주주의		沖繩으로부터 전쟁을 생각한다./전쟁으로부터 沖繩를 생각한다.
	沖繩와 헌법-그 원점과 현재 시점		沖繩의 정치(기지 문제/지방자치 문제)
	「江戸立」의 세계		기지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沖繩경제
	방언 礼考-금지된 언어와 그 실태		웃음과 공동체 시리즈

·출처: 早稻田大學 「琉球·沖繩研究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작성함.

다. 일본 지역학의 연구기관 운영 현황

1) 아오모리학(靑森學)

□ 기구명칭 : あおもり學

□ 실시단체 : 靑森縣民カレッジ 靑森縣總合社會教育センター

□ 설립목적

- 아오모리학은 정치·경제·교육·교통·문화·역사·전통·예능·민속·기상·동물·식물 등 각 분야에 대해 물건, 사람, 사물(의식·사고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靑森縣을 총괄하고 기존 학문의 성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 관한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임. 또한 이 학문은 단순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물을 통해 창조적으로 지적 발견의 즐거움을 연결하는데 있음.

□ 사업개요

- 靑森縣民 대학에서는 학습기회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써 「靑森學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학습내용을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각 교육사무소가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 주최 : 靑森縣교육위원회(주관 : 교육사무소)
- 기간 및 시간 수 : 2002년 8월~2003년 2월 7일간(14시간 이상) 정도
- 대상자 및 인원 : 일반 현민(현민대학 학생) 70명 정도
- 학습내용
 - 지역을 안다(다면적으로 정확한 지식의 습득)
 - 지역을 서로 대비하여 본다(비교의 시점에 의한 지역 파악)
 - 지역을 인정한다(靑森縣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지역을 창조한다(지역의 활성화나 지역 만들기에 참여)

2) 에도도쿄학(江戸東京學)

□ 기구명칭 : 江戸東京フォーラム

□ 실시단체 : 財団法人 住宅総合研究財団

□ 설립목적

- 도쿄(東京)는 도시 기능이 복잡하고, 다중구조로 형성된 도시임. 江戸東京學은 에도에서 도쿄에 이르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문화변용, 도시 형성, 일상생활의 과정을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임.

□ 사업개요

- 에도도쿄포럼(江戸東京フォーラム)은 1986년 주택종합연구재단의 조성연구로 발족하여 1987년부터 재단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15년간 142회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당초는 위원 3명이 기획을 담당하였지만 1998년부터는 5명의 위원(역사학, 건축사, 지역학, 문학, 사회학)에 의해 학제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이 사업은 현재 연구회의 기능을 가진 에도도쿄포럼(연 5회)과 시민에게 공개하는 에도도쿄포럼(연 1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포럼은 주제 선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억으로서 도시-도시나 전쟁의 기억, 옛날의 기억, 마을이나 사물의 기억으로부터 역사를 찾아감.
- 지역연구라는 공간 이미지를 쉽게 하기 위해 지역을 압축해서 도시문화를 비교함.
- 문화학·도시문화학 분야에서 시대를 가르는 1920년~1930년대는 문화와 도시가 글로벌을 통해 동시성이 성립된 시기임. 이 시대를 깊게 연구함으로써 지역학의 새로운 것을 발견함.
- 에도메이지에서 정보망의 구축을 배움.

3) 요코하마학(横浜學)

기구명칭 : 横浜學

실시단체 : 横浜學連絡會議

설립목적

- 横浜學連絡會議는 요코하마학 추진의 핵심으로 시내대학, 연구단체, 경제단체, 신문사, 요코하마시 등 협력에 의해 1991년 8월 2일에 설립함.
- 요코하마의 보급 발신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이나 연구자 등이 요코하마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 교류하는 장이기도 함.

사업개요

- 요코하마학 세미나-横浜學連絡會議의 위원이 코디네이터로서 기획을 담당하여 연 3~4회 개최함.
- 요코하마학 심포지움 개최 : 연 1회 요코하마학의 보급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함.
- 요코하마학 : 연내 2~3회 발행, 저명인사 인터뷰, 각 연구자단체의 활동상황, 요코하마학 등과 관련된 자료 보존, 협찬금 기업 소개로 일반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행정관련 기관에 배포함.
- 요코하마학에 관한 상담-생애학습센터·지역 활동단체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연과 지원을 실시함.

4) 오사카학(大阪學)

기구명칭 : 大阪學

실시단체 : (財)大阪都市協會

설립목적

- 오사카의 역사나 문화의 재발견과 오사카 발(發)의 정보통신

□ 사업개요

○ 오사카강좌 개최

- 오사카의 역사나 문화에 초점을 둔 주제로 연속강좌를 연 1회 개최함과 동시에 보고서 형태로 강좌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병행하여 발행함.
- 1991년 나니와(難波; 오사카의 옛 이름)를 구축한 사람들
- 1992년 나니와 사물기원
- 1993년 나니와 200년
- 1994년 나니와 국제교류사
- 1995년 번성한 오사카 역사
- 1996년 물의 도시 오사카 이야기
- 1997년 문화의 발신기지 오사카
- 1998년 오사카를 탐색한다-유적으로 찾아가는 오사카의 역사
- 1999년 오사카를 탐색한다-출토품이 말하는 오사카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 월간지 『오사카인』 발행

- 오사카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사람이나 마을, 역사나 문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함.
- 오사카에서 전 지역으로 발신하는 종합잡지로 매월 발행함.
- 「오사카인도 알지 못하는 오사카」의 매력을 발견함.

바. 일본 지역학 연구기관의 시사점

- 일본의 지역학 개념은 지역에 관한 학습 기회의 충칭이나, 강좌사업의 명칭, 지역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지역의 진흥이나 문화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만들거나 지역사회 참가 활동 등 독자적인 목적이나 방법을 가지고 전개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일본의 지역학은 오랫동안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고자 지역학과 주민이 밀착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시청,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 언론, 대학,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산·관·학이 연계

되면서 지역의 기업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일본의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종합적·학제적 연구로써 지역연구라는 순수 학문적인 것과는 달리 주로 평생학습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음. 즉, 그 지역의 자연, 사람, 사상 등을 학습함으로써 개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활성화, 지역 만들기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음.
- 일본의 지역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NPO 등의 시민단체에서부터 학습을 취미로 생활하는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시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Ⅲ. 제주학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의 설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학 진흥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제주학연구센터)을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설치함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이 조사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방안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조사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주학연구센터 출범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설문지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 ‘제주학연구단체(연구기관, 학회, 연구소, 연구모임 등)의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설정과 세부적인 기능 평가’,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연구사

업의 설정과 평가’,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재원 조달방안’ 및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원이 전문가(조사대상자)를 방문, 직접(face-to-face)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가 이메일로 설문지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설문지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여 응답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병행 사용하였음.
-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 일반적인 표본조사와 달리, 이 조사의 대상자는 제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객관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 학자, 언론인, 교사, 정치인, 행정가 및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연구진의 협의에 따라 표집되었음.
-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 96명 가운데 출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8명을 제외한 88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가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확정되었음.
- 자료수집은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음.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2. 조사 결과의 분석

가.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음.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71	80.7
	여자	17	19.3
연령	30대	7	7.9
	40대	27	30.7
	50대	44	50.0
	60세 이상	10	11.4

구 분		빈도(명)	비율(%)
학력	대졸	19	21.6
	대학원 석사(석사과정 이수 중/수료 포함)	17	19.3
	대학원 박사(박사과정 이수 중/수료 포함)	52	59.1
직업	대학교수	38	43.2
	언론인	9	10.2
	연구직	14	15.9
	교사 및 공무원	12	13.6
	정치인	2	2.3
	기타	13	14.8
관심분야	인문학	38	43.2
	사회과학	22	25.0
	자연과학	25	28.4
	기타	3	3.4
합 계		88	100.0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80.7%(71명), 여자 19.3%(17명)이며, 연령은 30대 7.9% (7명), 40대 30.7%(27명), 50대 50%(44명), 60세 이상 11.4%(10명)로 나타남.
- 최종 학력은 대졸 21.6%(19명), 대학원 석사(석사과정 이수/수료 포함) 19.3%(17명), 대학원 박사(박사과정 이수/수료 포함) 59.1%(52명)로 응답되었고, 직업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수 43.2%(38명), 언론인 10.2%(9명), 연구직 15.9%(14명), 교사 및 공무원 13.6%(12명), 정치인 2.3%(2명), 기타 14.8%(13명)로 나타남.
- 관심분야는 인문학 43.2%(38명), 사회과학 25.0%(22명), 자연과학 28.4% (25명), 기타 3.4%(3명)로 응답되었음.

나.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과 자원 조달 방법

1)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

- 제주학연구센터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직접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능’과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 병행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41.4%(3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직접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능’ 23.0%(20명), ‘제주학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자료 축적과 활용 인프라 구축’ 20.7%(18명),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 11.5%(10명), ‘기타’ 3.4%(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 제주학연구센터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운영방안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학 연구센터가 직접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능	20	23.0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	10	11.5
위의 두 가지를 병행	36	41.4
제주학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자료 축적과 활용 인프라 구축	18	20.7
기타	3	3.4
합 계	87	100.0

2)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재원 조달 방법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9.5%(34명)가 각각 ‘국비’, ‘지방비’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는 17.5%(15명), ‘후원금’은 3.5%(3명)이었음.
- ‘기타’의 내용에는 ‘국비와 지방비’ 7.0%(6명), ‘국비, 지방비 및 후원금’ 8.1% (7명), ‘지방비와 후원금’ 2.3%(2명) 등과 같은 공동조달방법이 제시되었음.

<표 3-3>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국비	34	39.5
지방비	34	39.5
후원금	3	3.5
기타	15	17.5
합 계	86	100.0

다. 제주학연구단체의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

- 제주지역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학 연구단체(연구기관, 학회, 연구소, 연구모임 등)를 가지고 있는 제반 현안 문제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내용은 ‘연구인력’, ‘연구재정기반’, ‘지원예산’, ‘연구공간’, ‘연구단체간의 소통’, ‘연구성과’, ‘공동연구 여건’, ‘대형연구과제 수행 역량’, ‘공공기관의 관심도’,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 ‘연구단체 소규모화’, ‘연구영역 중복’ 등 12개 항목이었음(<표 3-4> 참조).

<표 3-4> 제주학 연구단체의 현안문제 내용

(단위 : %, 명)

구 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합계
연구인력	23.9(21)	48.8(43)	21.6(19)	5.7(5)	-	100.0(88)
연구재정기반	58.6(51)	27.6(24)	11.5(10)	2.3(2)	-	100.0(87)
지원예산	51.7(45)	33.4(29)	13.8(12)	1.1(1)	-	100.0(87)
연구공간	37.5(33)	39.8(35)	17.0(15)	5.7(5)	-	100.0(88)
연구단체간의 소통	17.1(15)	54.5(48)	25.0(22)	2.3(2)	1.1(1)	100.0(88)
연구성과	5.8(5)	55.2(48)	31.0(27)	8.0(7)	-	100.0(87)
공동연구 여건	31.4(27)	37.2(32)	26.7(23)	4.7(4)	-	100.0(86)
대형연구과제 수행 역량	23.9(21)	34.1(30)	29.5(26)	11.4(10)	1.1(1)	100.0(88)
공공기관의 관심도	39.8(35)	45.5(40)	10.2(9)	4.5(4)	-	100.0(88)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	26.1(23)	46.7(41)	26.1(23)	1.1(1)	-	100.0(88)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합계
연구단체 소규모화	11.4(10)	48.9(43)	35.2(31)	3.4(3)	1.1(1)	100.0(88)
연구영역 중복	3.4(3)	34.1(30)	44.3(39)	14.8(13)	3.4(3)	100.0(88)

- 전체적으로 볼 때, 현안문제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들의 여건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연구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88명 중 48.8%(43명)가 ‘다소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 23.9%(21명), ‘보통이다’ 21.6%(19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5.7%(5명)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 ‘연구재정기반’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 27.6%(24명), ‘보통이다’ 11.5%(10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2.3%(2명) 순이었음.
- ‘지원예산’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으며 (51.7%, 45명),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 33.4%(29명), ‘보통이다’ 13.8% (12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1.1%(1명) 순을 보이고 있음.
- ‘연구공간’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35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족하다’ 37.5%(33명), ‘보통이다’ 17%(15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5.7%(5명) 순으로 나타났음.
- ‘연구단체간의 소통’ 문제에는 54.5%(48명)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5.0%(22명), ‘매우 부족하다’ 17.1%(15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2.3%(2명), ‘전혀 부족하지 않다’ 1.1%(1명) 순의 비율을 보였음.
-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55.2%, 48명), ‘보통이다’ 31.0%(27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8.0%(7명), ‘매우 부족하다’ 5.8%(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동연구 여건’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37.2%(32명)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 31.4%(27명), ‘보통이다’ 26.7% (23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4.7%(4명) 순이었음.
- ‘대형연구과제 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에 응답한 경우가 34.1%(3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29.5%(26명), ‘매우 부족하다’ 23.9%(21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11.4%(10명), ‘전혀 부족하지 않다’ 1.1%(1명) 순으로 나타났음.
- ‘공공기관의 관심도’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이 45.5%(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 39.8%(35명), ‘보통이다’ 10.2%(9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4.5%(4명) 순으로 응답을 보였음.
-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7%(41명)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 ‘보통이다’ 각각 26.1%(23명),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1.1%(1명)순으로 나타났음.
- ‘연구단체 소규모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이 48.9%

(4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5.2%(31명), ‘매우 심각하다’ 11.4%(10명), ‘별로 심각하지 않다’ 3.4%(3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1.1%(1명) 순이었음.

- ‘연구영역 중복’ 문제에는 44.3%(39명)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소 심각하다’가 34.1%(30명),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4.8%(13명), ‘별로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3.4%(3명)이었음.
- 제주학연구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1순위와 2순위로 평가된 것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음.

<표 3-5> 제주학연구단체의 우선순위별 현안문제 내용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연구인력 문제		21.8(19)	10.3(9)	0.54
연구재정기반 문제		43.7(38)	16.1(14)	1.03
지원예산 문제		6.9(6)	24.1(21)	0.38
연구공간 문제		-	1.2(1)	0.01
연구단체간 소통 문제		4.6(4)	4.6(4)	0.14
연구성과 문제		4.6(4)	9.2(8)	0.18
공동연구 여건 문제		2.4(2)	4.6(4)	0.09
대형연구과제 수행역량 문제		3.4(3)	6.9(6)	0.14
공공기관의 관심도 문제		5.7(5)	8.1(7)	0.20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 문제		5.7(5)	6.9(6)	0.18
연구단체의 소규모화 문제		-	3.4(3)	0.03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		1.2(1)	3.4(3)	0.05
기타		-	1.2(1)	0.01
합 계		100.0(87)	100.0(87)	

주: 평균점수 산출시 중요순서에 따른 가중치를 1순위에 2점, 1순위에 1점,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이후의 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따랐음.

- 1순위 그룹 내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안문제는 ‘연구재정기반 문제’였으며(43.7%, 38명), ‘연구인력 문제’(21.8%, 19명)가 그 다음이었음.

- 2순위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현안 문제는 ‘지원예산 문제’(24.1%, 21명), ‘연구재정기반 문제’(16.1%, 14명), ‘연구인력 문제’(10.3%, 9명) 순이었음.

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과 세부 기능

1)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내용은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제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등으로 제시되었음(<표 3-6> 참조).

<표 3-6>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내용

(단위 : %, 명)

구 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계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45.3(39)	30.2(26)	18.6(16)	3.5(3)	2.4(2)	100.0(86)
제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38.4(33)	30.2(26)	23.3(20)	5.8(5)	2.3(2)	100.0(86)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30.2(26)	33.7(29)	30.2(26)	2.4(2)	3.5(3)	100.0(86)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41.8(36)	32.6(28)	20.9(18)	4.7(4)	-	100.0(86)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27.9(24)	36.0(31)	22.1(19)	10.5(9)	3.5(3)	100.0(86)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25.6(22)	37.2(32)	22.1(19)	9.3(8)	5.8(5)	100.0(86)

-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항목에 대해서는 45.3%(39명)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적절하다’ 30.2%(26명), ‘보통이다’ 18.6%(16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3.5%(3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2.4%(2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제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항목은 ‘매우 적절하다’에 38.4%(33명)가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적절하다’ 30.2%(26명), ‘보통이다’ 23.3%(20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5.8%(5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2명) 순이었음.
-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항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 33.7%(29명), ‘매우 적절하다’, ‘보통이다’ 각각 30.2%(26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3.5%(3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2.4%(2명)로 나타났음.
-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41.8%(36명)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적절하다’ 32.6%(28명), ‘보통이다’ 20.9%(18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4.7%(4명)의 차례를 보였음.
-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항목에 있어서는 36.0%(31명)가 ‘대체로 적절하다’, 27.9%(24명)가 ‘매우 적절하다’, 22.1%(19명)가 ‘보통이다’, 10.5%(9명)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3.5%(3명)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았음.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항목에는 37.2%(32명)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매우 적절하다’ 25.6%(22명), ‘보통이다’ 22.1%(19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9.3%(8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5.8%(5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7>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우선순위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52.3(46)	8.0(7)	1.13
제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		11.4(10)	13.6(12)	0.36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10.2(9)	13.6(12)	0.34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17.1(15)	34.1(30)	0.68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시스템 구축		1.1(1)	13.6(12)	0.16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4.5(4)	14.8(13)	0.24
기타		3.4(3)	2.3(2)	0.09
합 계		100.0(88)	100.0(88)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그룹에서는 52.3%(46명)가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2순위 그룹에서는 34.1%(30명)가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2)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적인 기능

-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적인 기능(주요 업무)은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직접기관’,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제주학 관련 공모사업 추진’, ‘세계 섬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협력’,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조례 제정’ 등의 내용항목으로 구성되었음(<표 3-8> 참조).

<표 3-8>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 기능(주요 업무)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40.9(36)	10.3(9)	0.92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직접기관		27.3(24)	15.0(13)	0.69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9.1(8)	25.3(22)	0.43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11.4(10)	20.6(18)	0.43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4.5(4)	8.0(7)	0.17
제주학 관련 공모사업 추진		-	2.3(2)	0.02
세계 섬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2.3(2)	0.02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협력		1.1(1)	1.2(1)	0.03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조례 제정		5.7(5)	15.0(13)	0.26
합 계		100.0(88)	100.0(87)	

-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적인 기능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면, 1순위 그룹에서는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이 40.9%(36명)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직접기관’ 27.3%(24명),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11.4%(10명)의 차례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2순위 그룹에서는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25.3%, 22명), 그 다음으로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20.6%, 18명),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직접기관’과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조례 제정’(각각 15.0%, 13명)이 나타나고 있음.

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연구사업

1) 연구자체 사업

- ‘연구자체 사업’은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공히 아우르는 연구사업으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국책사업 등) 수행’,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표 3-9> 참조).

<표 3-9>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연구사업

(단위 : %, 명, 점수)

구 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계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29.0(25)	44.2(38)	22.1(19)	4.7(4)		100.0(86)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국책사업 등) 수행	20.9(18)	41.9(36)	25.6(22)	9.3(8)	2.3(2)	100.0(86)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41.4(36)	39.1(34)	17.3(15)	1.1(1)	1.1(1)	100.0(87)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36.8(32)	46.0(40)	13.8(12)	3.4(3)		100.0(87)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33.3(29)	51.7(45)	12.6(11)	2.4(2)		100.0(87)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 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27.6(24)	44.8(39)	16.1(14)	10.3(9)	1.2(1)	100.0(87)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23.0(20)	25.3(22)	31.0(27)	17.2(15)	3.5(3)	100.0(87)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18.6(16)	39.5(34)	24.4(21)	15.1(13)	2.4(2)	100.0(86)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은 44.2%(38명)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적절하다’ 29.0%(25명), ‘보통이다’ 22.1%(19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4.7%(4명) 순이었음.
-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국책사업 등) 수행’에 대해서는 41.9%(36명)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보통이다’, ‘매우 적절하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각각 25.6%(22명), 20.9%(18명), 9.3%(8명), 2.3%(2명)로 그 뒤를 따랐음.
-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과 관련해서는 ‘매우 적절하다’에 가장 많은 41.4%(36명)가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적절하다’ 39.1%(34명), ‘보통이다’ 17.3%(15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각각 1.1%(1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46.0%(40명)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매우 적절하다’ 36.8%(32명), ‘보통이다’ 13.8%(12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3.4%(3명) 순을 보였음.
-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사업은 51.7%(45명)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에 ‘매우 적절하다’ 33.3%(29명), ‘보통이다’ 12.6%(11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2.4%(2명) 순이었음.
-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에 가장 많은 44.8%(39명)가 답하였으며, ‘매우 적절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순으로 비율은 각각 27.6%(24명), 16.1%(14명), 10.3%(9명), 1.2%(1명) 이었음.
-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는 31.0%(27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대체로 적절하다’ 25.3%(22명), ‘매우 적절하다’ 23.0%(20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17.2%(15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3.5%(3명) 이었음.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39.5%(34명)가 ‘대체로 적절하다’에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4.4%(21명), ‘매우 적절하다’ 18.6%(16명),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15.1%(13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2.4%(2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0>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연구자체 사업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29.5(26)	8.0(7)	0.67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수행		11.4(10)	9.1(8)	0.32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 (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29.5(26)	19.3(17)	0.78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	2.3(2)	0.02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3.4(3)	19.3(17)	0.26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14.8(13)	21.6(19)	0.51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8.0(7)	13.6(12)	0.30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3.4(3)	6.8(6)	0.14
합 계		100.0(88)	100.0(88)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연구자체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나타내면, 1순위 그룹에서는 가장 많은 선택된 사업은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29.5%, 26명),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29.5%, 26명)이었으며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14.8%, 13명),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국책사업 등) 수행’(11.4%, 10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순위 그룹에서는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선택한 응답자가 21.6%(19명)로 가장 많았고,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각각 19.3%(17명),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은 13.6%(12명)의 응답을 보였음.

2)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의 내용에는 ‘제주어 연구’, ‘제주고문헌 연구’, ‘제주신화·설화 연구’, ‘제주민요 연구’,

‘제주민속·신앙연구’, ‘제주고고학 연구’, ‘제주해양문화 연구’, ‘탐라사 연구’, ‘제주문학 연구’, ‘제주목축문화 연구’, ‘제주인문지리 연구’, ‘제주인물사 연구’, ‘제주문화사연구’, ‘기타’ 등이 제시되었음(<표 3-11> 참조).

<표 3-1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어 연구		40.9(36)	6.9(6)	0.89
제주고문헌 연구		12.5(11)	8.0(7)	0.33
제주신화·설화 연구		4.6(4)	14.9(13)	0.24
제주민요 연구		-	1.2(1)	0.01
제주민속·신앙연구		5.7(5)	9.2(8)	0.20
제주고고학 연구		5.7(5)	4.6(4)	0.16
제주해양문화 연구		9.1(8)	6.9(6)	0.25
탐라사 연구		6.8(6)	13.8(12)	0.27
제주문학 연구		1.1(1)	1.2(1)	0.03
제주목축문화 연구		-	2.3(2)	0.02
제주인문지리 연구		2.3(2)	6.9(6)	0.11
제주인물사 연구		-	2.3(2)	0.02
제주문화사 연구		10.2(9)	21.8(19)	0.42
기타		1.1(1)	-	0.02
합 계		100.0(88)	100.0(87)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할 만한 인문학 분야 관련 연구사업으로 1순위 그룹에서는 ‘제주어 연구’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40.9%, 36명), 다음으로 ‘제주고문헌 연구’(12.5%, 11명), ‘제주문화사 연구’(10.2%, 9명), ‘제주해양문화 연구’(9.1%, 8명) 등의 순이었음.
- 2순위 그룹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으로는 ‘제주문화사 연구’(21.8%, 19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 신화·설화 연구’(14.9%, 13명), ‘탐라사 연구’(13.8%, 12명), ‘제주민속·신앙 연구’(9.2%, 18명) 등의 차례였음.

3) 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 사회과학분야 관련 연구지원 사업의 내용은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제주 4·3 연구’,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 ‘제주농어민 연구’, ‘제주노동자 연구’, ‘제주지역개발 연구’, ‘제주사회운동 연구’, ‘제주산업 연구’, ‘제주도 기업 및 기업가 연구’, ‘재외제주인 연구’, ‘제주이주민 연구’, ‘제주사회복지 연구’, ‘제주도시/주거환경 연구’,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기타’ 등으로 구성되었음(<표 3-12> 참조).

<표 3-12>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59.1(52)	5.7(5)	1.24
제주 4·3 연구		5.7(5)	3.4(3)	0.15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		10.3(9)	18.2(16)	0.39
제주농어민 연구		-	6.8(6)	0.07
제주노동자 연구		-	-	-
제주지역개발 연구		6.8(6)	11.4(10)	0.25
제주사회운동 연구		2.3(2)	3.4(3)	0.08
제주산업 연구		1.1(1)	3.4(3)	0.06
제주도 기업 및 기업가 연구		-	3.4(3)	0.03
재외제주인 연구		1.1(1)	10.2(9)	0.13
제주 이주민 연구		-	2.3(2)	0.02
제주사회복지 연구		1.1(1)	1.1(1)	0.03
제주도시/주거환경 연구		8.0(7)	8.0(7)	0.24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4.5(4)	21.6(19)	0.31
기타			1.1(1)	0.01
합 계		100.0(88)	100.0(88)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사회과학 분야 관련 연구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순위 그룹에는 응답자의 59.1%(52명)가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를 꼽았으며,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 ‘제주도시/주거환경연구’, ‘제주지역개발 연구’도 각각 10.3%(9명), 8.0%(7명), 6.8%(6명)의 비율을 보였음.
- 2순위 그룹 내에서는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21.6%, 19명)가 가장 많이 뽑혔으며,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18.2%, 16명), ‘제주지역개발 연구’(11.4%, 10명), ‘재외제주인 연구’(10.2%, 9명) 순으로 그 다음을 따르고 있음.

4)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자연과학 분야 관련 제시된 연구지원 사업에는 ‘제주지질 연구’, ‘제주화산 연구’, ‘제주식물 연구’, ‘제주동물 연구’, ‘제주건축 연구’, ‘제주환경 연구’, ‘제주수산 연구’, ‘제주기후 연구’, ‘제주감귤 연구’, ‘한라산 연구’, ‘제주원예 연구’, ‘제주해양 연구’, ‘제주 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 ‘기타’ 등이었음(<표 3-13> 참조).

<표 3-13>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우선순위별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단위 : %, 명, 점수)

문항	중요순서	1순위	2순위	평균
제주지질 연구		14.0(12)	2.3(2)	0.30
제주화산 연구		5.8(5)	2.3(2)	0.14
제주식물 연구		9.3(8)	5.8(5)	0.24
제주동물 연구		-	1.2(1)	0.01
제주건축 연구		3.5(3)	3.4(3)	0.10
제주환경 연구		32.6(28)	17.4(15)	0.81
제주수산 연구		4.6(4)	1.2(1)	0.10
제주기후 연구		8.1(7)	12.8(11)	0.28
제주감귤 연구		-	1.2(1)	0.01
한라산 연구		15.1(13)	14.0(12)	0.43
제주원예 연구		1.2(1)	-	0.02
제주해양 연구		3.5(3)	18.6(16)	0.25
제주 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		2.3(2)	19.8(17)	0.24
합 계		100.0(86)	100.0(88)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자연과학 분야 관련 연구지원 사업 중 1순위 그룹에서는 ‘제주환경 연구’가 32.6%(28명)로 가장 많았으며 ‘한라산 연구’(15.1%, 13명), ‘제주지질 연구’(14.0%, 12명), ‘제주식물 연구’(9.3%, 8명), ‘제주기후 연구’(8.1%, 7명) 등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음.
- 2순위 그룹에서는 19.8%(17명)가 ‘제주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제주해양 연구’(18.6%, 16명), ‘제주환경 연구’(17.4%, 15명), ‘한라산 연구’(14.0%, 12명), ‘제주기후 연구’(12.8%, 11명) 순이었음.

3. 정책적 시사점

- 제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내용의 빈도분포와 우선순위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평균점수 등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도내 제주학 관련 전문가들은 제주학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직접 제주학을 연구’하고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병행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제주학 연구를 위한 인적·물적·자료축적과 활용 및 인프라 구축’도 방향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거나 정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학 연구단체(연구기관, 학회, 연구소, 연구모임 등)들이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앞에 제시한 것처럼 여러 사항을 열거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제

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직접기관’,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추진할 만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공히 아우르는 연구자체 사업으로는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제주어 연구’를 가장 추진할 만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문화사 연구’, ‘제주고문헌 연구’, ‘탐라사 연구’, ‘제주해양문화 연구’, ‘제주신화·설화 연구’ 등도 타 연구사업보다 비중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
- 사회과학분야 관련 연구지원 사업으로는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제주지역개발 연구’, ‘제주도시/주거환경 연구’ 등이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자연과학 분야 관련 연구지원 사업에는 ‘제주환경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한라산 연구’, ‘제주지질 연구’, ‘제주기후 연구’, ‘제주해양 연구’, ‘제주식물 연구’ 등도 비교적 비중 있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IV.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안

1.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배경

가. 외부적 요인

-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공정, 이어도공정, 독도문제 등과 같은 영토분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민족의식을 더욱 강화시켜 새로운 민족 간의 문화 갈등 추세를 보여줌.
- 제주의 생활공동체적 문화 전통 또한 ‘세계화’의 총체적인 흐름에 직면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며 지역의 특수성·보편성, 문화·경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은 21세기 제주도가 남방 해양문화와 북방 대륙문화의 교차지점이며, 동아시아 해역의 거점으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는 학문적·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내부적 요인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특별자치도로 재편되면서 제주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주도내 제주학 연구 관련 공공 성격의 연구기관이 부재함.
- 학제 간의 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제주산업 발전의 엔진기능을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함.
- 제주도내 산재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체계가 부족함.
- 제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취약함.

다. 제주발전연구 부설 설치·운영 배경

- 독립적인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설립은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상 독립적인 연구기관 출범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함.
- 제주발전연구원에는 기존 제주학 관련 전문 연구인력 및 지원행정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직·간접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가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 연구센터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 연구기관으로 전환될 때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학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함.

2. 비전 및 목표



핵심분야



(그림 3)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과 목표

가. 비전 :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 정립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의 섬」에 걸맞은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 미래 비전의 학문적·이론적 토대 마련
- 관광객 1천만 시대와 인구 70만 시대를 앞둔 제주인의 자신감과 정체성 확보

나. 목표

-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 제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총괄함.
 - 지역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 이론과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
- 학문 인프라 구축
 - 제주학 연구성과와 문화·현실·미래정책이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함.
 - 제주학 연구성과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학문과 실천의 장 조성
 - 제주도내·외의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함.
 -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중화 방안을 모색함.

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차별화 방향

- 기존 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거점 연구센터의 역할 수행
-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수행
-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힘든 기초적인 제주학 기초자료 아카이브 구축
 - 토대 연구 수행
- 제주의 독특한 연구대상에 대한 차별적 연구에 주력

-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을 수행할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섬 지역 연구소와 협력체계 구축

3. 제주학의 개념

가. 지역학의 개념

- Walter Isard(1956)에서는 “지역학은 공간구성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산·평지·물 등 물리적 환경이 아닌 요소들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물리적 환경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들과 구분되는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학 연구임. 그러나 이러한 공간 차원이 결과적으로 또는 추정된 상호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외하고 공간적 또는 지역적 관심이 중점이 되는 문제들만을 다루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Garnsey(1956)에서는 “지역학이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생리적·사회적 현상들이 지역적으로 물리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말함. 또한 지역학이란 종합 학문으로 지역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학문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모리스 간지의 지역학 개념을 적용하여 월터 아이사드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학은 공간구성으로 물리적·생태적·사회적 현상들이 지역적으로 물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거나 또는 가설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연구로 정의했음.
- 고석규(1994)에서는 지역이라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며,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학문이라 정의하였음.
- 유철인(1996)에서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특징과 정체감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라 정의하였음.

- 이상의 정의들을 살펴볼 때, 지역학(regional science)은 공간 체계와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예측하는데 주력하여 왔음. 이에 대해 Isard & Reiner(1966)에 의하면 “지역학은 인간 활동의 입지적 차원과 공간적 구조가 인간 활동에 주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므로 지역학은 정성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화되는 원칙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 지역학은 해당 지역의 인문사회 가치와 문화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를 규명하는 융합학문으로서 지역주민의 존재 가치를 핵심 주제로 삼기 때문에 역사학, 철학, 국문학, 민속학, 인류학, 인문지리학, 교육학, 언론학, 문화예술학 등 주로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문 영역임.
- 공간이 담고 있는 인간 활동은 지극히 복잡하고 다원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자연과 인공의 조건에 의해 형성된 공간적인 상황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기 마련임. 이에 인간의 공간적인 활동은 이러한 자연적인 사물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 결과이며,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지역학은 종합 학문으로서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그리고 물리학 등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이론과 방법론을 도입하였음.
- 또한 지역학(地域學)이란 특정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임. 특히,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주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오늘날 지역학은 지역을 만들고 변화시켜 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종합적인 학문 영역임. 최근에 들어 지역학은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기초학문의 개발과 이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로 변화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내의 다양한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또한 지방화·세계화에 따라 지역공간이 재편되고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한 지역 이해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임.

나. 지역학의 성립 배경

- 1990년대에 들어 국내외 지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국내 지역학 열기는 1993년 서울학연구소 창립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제주학, 부산학, 경주학, 원주학, 충청학, 강원학과 같은 지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세계화 담론으로 대두됨.
 - 지역이 국민국가의 종속 단위가 아니라 세계와 조응하는 상대적·자율적 개념으로 부각됨. 지역 단위에서 세계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의 논리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의 민주화·지방화·분권화에 근거함.
 - 198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 국가에 종속된 지역이 자율적 주체로 부각되고, 중앙의 하위개념이었던 지방이 수평적인 지위로 부각됨.
 - 지역은 국가와 중앙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개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됨.
 - 지역문화가 세계적인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공존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정체성 확립이 요구됨.
-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정책적 수요가 급증함.
 - 1991년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제, 1995년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는 지역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함.
- 지역의 정체성 확인에 따른 지역연구의 중심이 대두됨.
 -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이 세계와 국가에 대응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단위로 부각되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가 활성화됨.
 - 이에 지역이 정치·행정·경제·문화적으로 독립단위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 필요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문화적 성찰이 시도되었음.

다. 제주학의 개념

- 제주도라는 독특한 자연적·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복합학문임.
- 제주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임.
- 제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총체적으로 성찰하여 지역의 문화와 정체감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제주학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 구현’이라는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학문임.
- 제주학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함.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임.

라. 제주학의 성립 배경

- 1967년, 제주대학교 제주도문제연구소(1981년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 설립
- 1978년, 제주도연구회(2004년 제주학회로 개칭) 설립
- 1989년, 제주도사연구회 설립
- 1997년, 제주학연구소 설립
- 제주도는 광역자치 행정지역 전체가 내륙지방과 단절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연구 단위로서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들의 정체성·독립성도 강한 편임.
- 제주도는 행정구역상의 지역성뿐만 아니라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의 지방성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다른 지방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 역사와 독립국가 경험과 언어적 차이가 엄존함.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먼저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봄.

4. 제주학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현재에 이르는 전 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는 특정시대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각 시대별로 변화한 공간 속에 존재한 모든 시대를 대상으로 함.
- 과거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포괄함(통시적 접근).

나. 공간적 범위

- 1만 년 전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된 제주섬(島)과 부속도서, 관할 영해를 대상으로 함.
-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 단위로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함.
- 제주도와 지리적·환경적·문화적으로 연관성을 맺었던 주변 지역 또한 연구 대상으로 삼음. 제주도를 축으로 한반도, 일본과 오키나와, 동남아, 몽골과 중국, 대만, 연해주 등 여러 지역의 문화를 상호연관성 속에서 범지역적으로 고찰함(공시적 접근).
- 제주도와 비슷한 세계적인 섬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함.

다. 연구 주체 상정에 따른 범위

-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단위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함.
- 또한 제주라는 지방·지역에 머물지 않고 제주를 넘어서서 한반도·동아시아·전 지구적으로 원근법적 통찰력을 가진 연구로 발전해야 함.
- 제주학의 연구 범주와 연구자가 확산되어 진정한 학문적 발전 및 인간·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 제주학은 제주를 넘어서는 학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주제별 범위
 - 거시적 범위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 미시적 범위 : 고고, 지질, 지리, 환경, 동·식물, 역사, 언어, 민속, 사회, 산업(경제), 관광, 문학, 예술, 교육, 건축 등

5. 제주학의 연구 대상

가. 연구자체 사업

- 제주학 관련 민간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 제주학 관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지원
- 제주학 관련 총서 및 자료집 발간
- 재외제주인의 의식조사
- 제주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성 사업
-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래 문화산업 육성방안 도출
- 세계 섬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타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협력
-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사업 수행
-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 제주학 진흥조례 제정
- 제주학 관련 중장기발전기금 확보

나. 연구지원 대상 사업

1) 인문학 분야

- 제주고문헌 연구
- 제주신화 연구
- 제주민요 연구
- 제주굿 연구
- 제주고고학 연구
- 제주해양문화 연구
- 탐라사 연구
- 제주문학 연구
- 제주목축문화 연구
- 제주생활사 연구

○ 제주 마을 조사 연구

2) 사회과학 분야

-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 제주4·3 연구
-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 제주여성 연구
- 제주농어민 연구
- 제주노동자 연구
- 제주지역개발사 연구
- 제주사회운동사 연구
- 제주산업사 연구
- 제주도 기업가 연구
- 제주도 기업 연구
- 재외제주인 연구
- 제주다문화 연구
- 제주사회복지 연구

3) 자연과학 분야

- 제주지질 연구
- 제주화산 연구
- 제주음식문화 연구
- 제주복식문화 연구
- 제주건축 및 도시계획 연구
- 제주동물 연구
- 제주식물 연구
- 제주동굴 연구
- 제주수산 연구
- 제주기후 연구
- 제주감귤 연구
- 제주한라산 연구

- 제주원에 연구
- 제주해양 연구
- 제주수자원 연구

다. 중점특화 사업 : 제주어 연구

- 제주어 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구축
-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제주어 대중화 자료 개발 및 보급
-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6. 기본 방향

가.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격

1) 제주학의 거점 공공 연구기관

-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지원, 분야 간 협동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인 제주학 연구 진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제주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제주문화예술재단/국립제주박물관/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돌박물관/해녀박물관/한라산연구소/난대림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제주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

2) 제주학 기초 자료 구축·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 제주학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초자료, 연구 성과 및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D/B) 함. 그동안 개인 연구자, 대학 연구기

관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집 또는 연구물로 발간된 사례가 있으나, 총괄적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자료 조사가 수행되지 못했음.

- 제주학과 관련된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사진류, 해외자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정리작업이 시급함.
- 제주학의 각 분야별로 자료총서, 제주학대사전 등을 연차적으로 편찬하고, 축적된 제주학 자료들을 연구자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학자료실>을 센터 내에 설치함. 또한 제주학 자료의 디지털화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학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 제주학의 학문적 역량과 국제적 시야를 두루 갖춘 역량 있는 관련 연구자를 지원하고, 학문 후속세대인 젊은 연구자의 양성을 지원함.
- 제주학 관련 학문 후속세대(대학원생)에 대한 전문 교양강좌인 <제주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조사·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함.

나.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1) 역할

- 지역학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 제주지역의 전문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협력과 지원 토대 마련
- 독자적인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
- 제주와 관련된 모든 문헌자료와 구비자료를 통한 제주학 연구의 기반 확충
- 제주학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시스템 구축
-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유기적 연구 토대 구축
- 제주학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인력 지원
-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이론 및 기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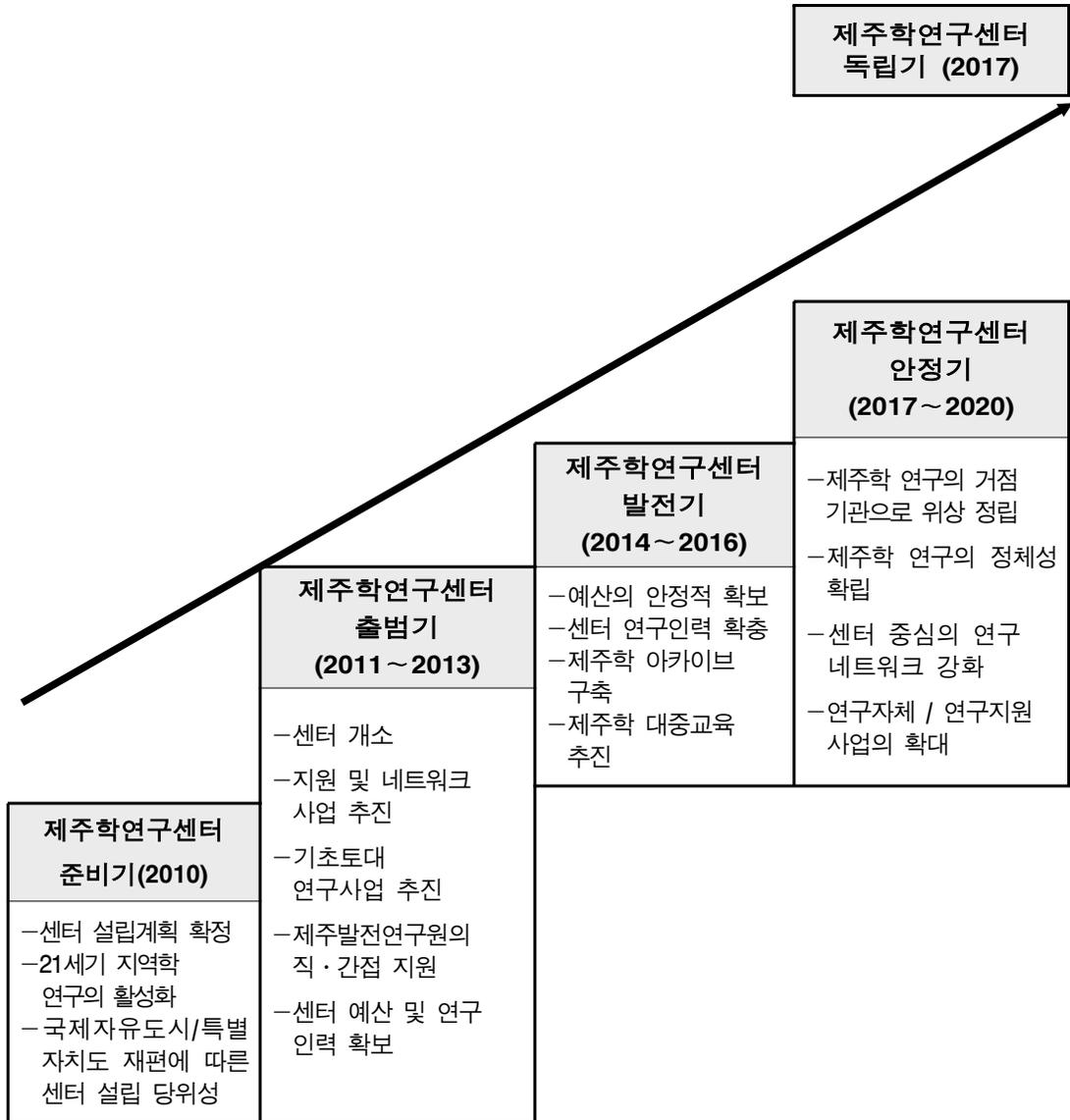
2) 기능

-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집적기관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지원을 통한 제주학 연구 활성화
- 제주학을 통한 산업화 방안 도출
-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
- 제주학 관련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수행과제 선정에 따른 공모 지원사업 추진
-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진흥기금의 조성과 육성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학의 발전 여건 조성

3) 제주어연구소 설립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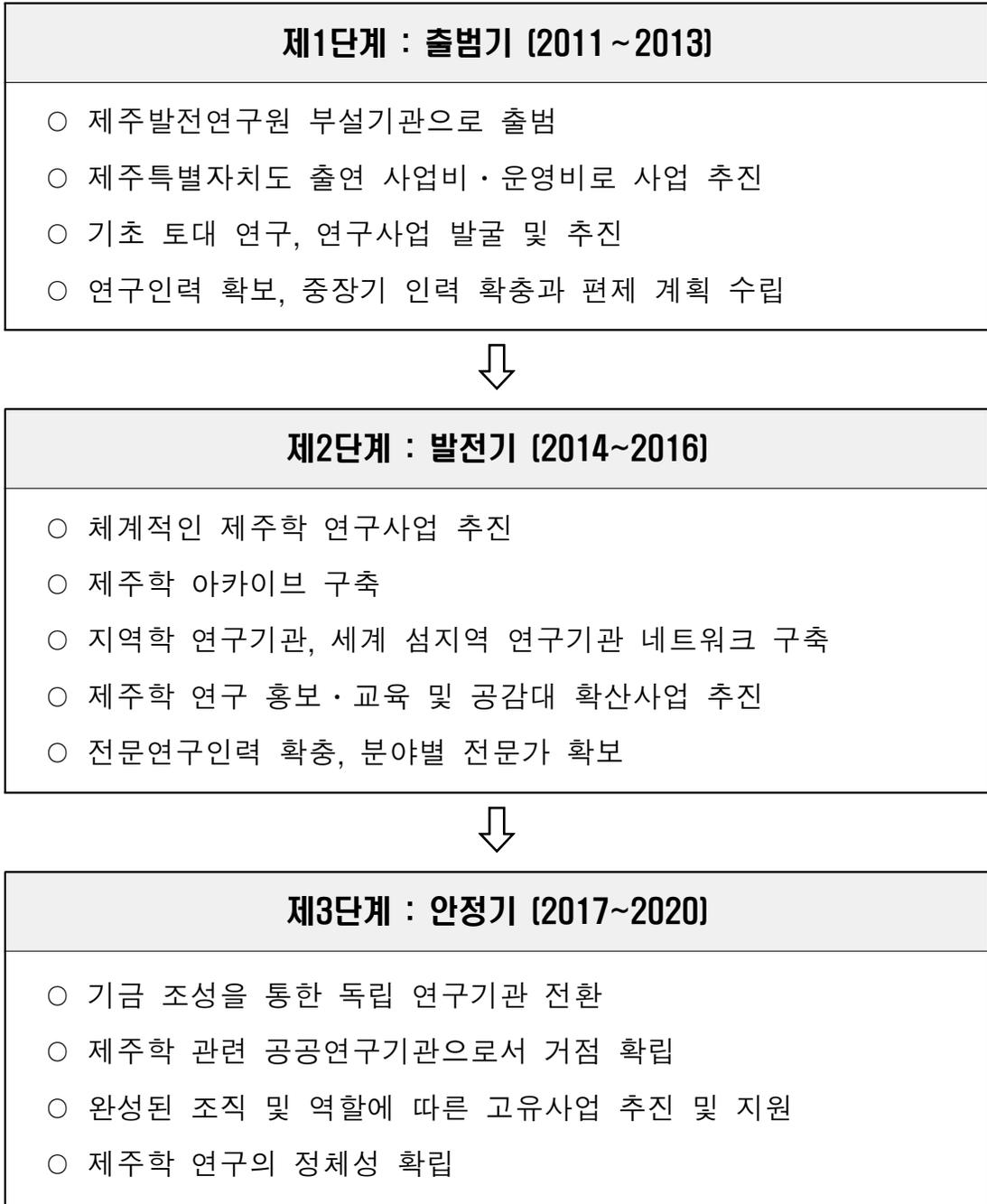
- 제주어연구소가 독립된 기구로 설립될 때까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그 기능을 전담함.
- 제주어 관련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토대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실시함.

7. 제주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



(그림 4)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단계

□ 제주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전략



(그림 5)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전략

V.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 이 장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사업 중에서 시의성을 고려하고, 설문응답 결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명을 참조하여 계획하였음.
- 이 사업들은 향후 5년간 추진 가능성을 유념하여 투자비를 산정하였음.
- 연구자체 사업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하려는 것이고, 연구지원 사업은 학제간·연구자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임.
- 제주학연구센터의 중점특화 사업은 ‘제주어 연구’ 분야로 제주문화의 주요소인 제주어(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역점 사업임.

1. 사업별 투자계획(안)

<표 5-1> 사업별 투자계획(안)

사업 영역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별 과제						
총계		2,650	400	500	500	600	650
1. 연구자체 사업		750	150	150	150	150	150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210	50	40	40	40	40
	제주 고문헌 연구	210	50	40	40	40	40
	제주학 총서·자료집	230	30	50	50	50	50
	제주학 교육사업	100	20	20	20	20	20
2. 연구지원 사업		1,900	250	350	350	450	500
	2-1. 인문학 분야	750	110	140	140	180	180
	제주 문화사 연구	170	30	30	30	40	40
	제주 해양문화 연구	160	30	20	30	40	40
	제주 신화·설화 연구	160	20	30	30	40	40
	제주 목축문화 연구	140	-	30	30	40	40
	제주 마을 조사·연구	120	30	30	20	20	20

사업 영역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 원)				
사업별 과제			2012	2013	2014	2015	2016
2-2. 사회과학 분야		770	110	130	140	180	210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180	30	30	30	40	50
	제주 개발사 연구	170	30	30	30	40	40
	제주 이주민 연구	160	30	20	30	40	40
	제주 가족·여성 연구	140	20	30	20	30	40
	제주 장수·복지 연구	120	-	20	30	30	40
2-3. 자연과학 분야		380	30	80	70	90	110
	제주 환경·기후 연구	110	30	20	20	20	20
	제주 한라산 연구	120	-	30	20	30	40
	제주 지질 연구	150	-	30	30	40	50

2. 연구자체 사업(안)

1) 연구자체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 홈페이지 개설 ○ D/B 구축 ○ 자료 디지털화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고문헌 연구	○ 고문서 조사 ○ 공문서 조사 ○ 신문자료 조사 ○ 고지도·고서화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학 총서·자료집	○ 인문학 총서·자료집 ○ 사회과학 총서·자료집 ○ 자연과학 총서·자료집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학 교육사업	○ 제주학 강좌 ○ 제주학 교사 연수 ○ 제주학 아카데미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2) 추진 계획(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연구사업명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50	40	40	40	40	210
●제주 고문헌 연구	50	40	40	40	40	210
●제주학 총서·자료집	30	50	50	50	50	230
●제주학 교육사업	20	20	20	20	20	100
합계	150	150	150	150	150	750

3. 연구지원 사업(안)

가.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1) 연구지원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 문화사 연구	○ 돌 문화 ○ 근대 대중문화 ○ 생활문화 구술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해양문화 연구	○ 해녀문화의 세계화 ○ 해양문화 유적 ○ 유인도 조사·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신화·설화 연구	○ 신화의 세계화 ○ 전설 발굴 체계화 ○ 무형문화 발굴 및 정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목축문화 연구	○ 목장 연구 ○ 목축 유적 연구 ○ 목축 기술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마을 조사·연구	○ 마을 조직 연구 ○ 공동체 의식 조사 ○ 마을 간의 네트워크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2) 추진 계획(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연구사업명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제주 문화사 연구	30	30	30	40	40	170
●제주 해양문화 연구	30	20	30	40	40	160
●제주 신화·설화 연구	20	30	30	40	40	160
●제주 목축문화 연구		30	30	40	40	140
●제주 마을 조사·연구	30	30	20	20	20	120
합계	110	140	140	180	180	750

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1) 연구지원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 제주인의 의식 조사 ○ 지역감성 연구 ○ 타자의 제주인 인식 연구 ○ 정체성 변화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개발사 연구	○ 개발과 성장 ○ 개발과 갈등 ○ 토지 문제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이주민 연구	○ 재일제주인의 이주 ○ 다문화(디아스포라) ○ 국내 이주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가족·여성 연구	○ 근현대 가족 연구 ○ 여성근로자 연구 ○ 혼인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장수·복지 연구	○ 노인시설 연구 ○ 장수의 섬 관련 비교 연구 ○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2) 추진 계획(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연구사업명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30	30	30	40	50	180
●제주 개발사 연구	30	30	30	40	40	170
●제주 이주민 연구	30	20	30	40	40	160
●제주 가족·여성 연구	20	30	20	30	40	140
●제주 장수·복지 연구		20	30	30	40	120
합계	110	130	140	180	210	770

다.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 사업

1) 연구지원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 환경·기후 연구	○ 꽃자왈 연구 ○ 지하수 연구 ○ 기후 변화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한라산 연구	○ 한라산 생태 연구 ○ 한라산 보존·활용 연구 ○ 한라산 문화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제주 지질 연구	○ 화산 연구 ○ 토양 연구 ○ 지질 경관 연구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2) 추진 계획(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연구사업명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제주 환경·기후 연구	30	20	20	20	20	110
●제주 한라산 연구	-	30	20	30	40	120
●제주 지질 연구	-	30	30	40	50	150
합계	30	80	70	90	110	380

라. 중점특화 사업 : 제주어 연구 분야

1) 연구자체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어 연구	○ 제주어 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구축 ○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2) 연구지원 사업 발굴

연구사업명	사업내용	협력기관
●제주어 연구	○ 제주어 관련 대중화 자료 개발 ○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3) 추진 계획(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연구사업명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연구자체 사업	50	40	40	50	50	230
●연구지원 사업	40	60	70	70	80	320
합계	90	100	110	120	130	550

주 1) 제주어 전담 인력 등 운영비가 제외된 예산임.

주 2) 이 예산안은 사업별 투자계획(안)이 미포함된 금액임.

VI. 행정 · 재정적 계획

1. 운영 조직

가. 운영 전략

1)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능과 제주학 관련 연구자 또는 연구단체 지원기능에 부합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 제주학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료축적과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학 연구를 활성화함.
- 국내·외 다른 지역의 지역학 연구기관과 인적교류 및 연구성과물 등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제주학 연구의 위상 정립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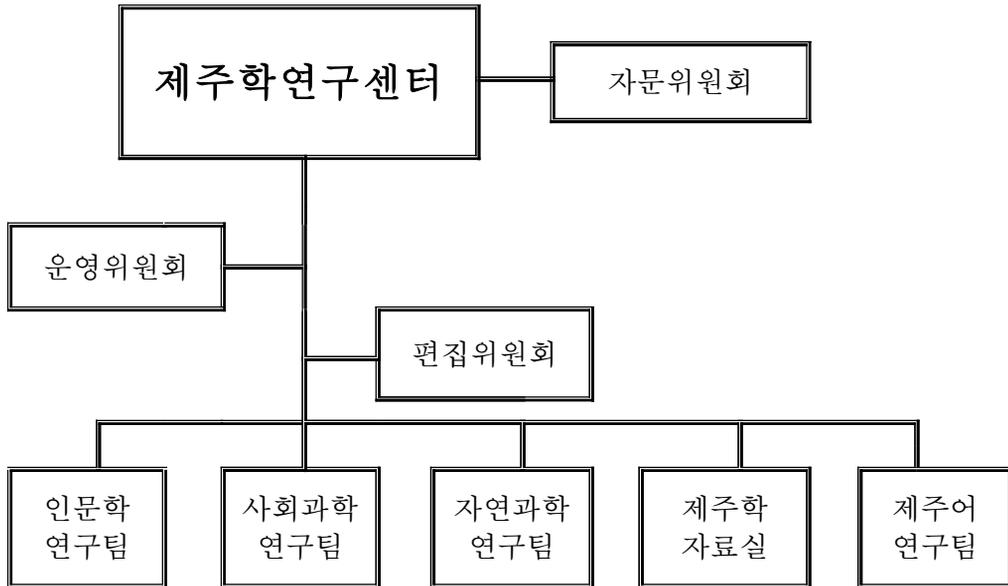
2) 공익성과 전문성(민관협력형)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주학 관련 연구는 공익성을 추구하며, 각종 연구 자료가 사익 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함.
- 제주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및 제주학 연구자(기관)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며, 제주학연구센터 내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연구 성과물의 질적 제고에 노력함.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성과물 등은 제주학연구센터 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

나. 조직 및 운영체계

1) 조직도

<표 6-1>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도는 <표 6-1>과 같음.
- 자문위원회는 제주학 관련 연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 제주학 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각계 원로로 구성하여 제주학이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함.
- 운영위원회는 제주학의 연구주제 및 해당과제 선정 등 제주학의 연간 연구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제주학연구센터 및 도내 지역학 연구기관과의 협동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
- 편집위원회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의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
- 인문학 연구팀은 제주학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인문학 연구팀에 부여된 인문학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제주어, 제주고문헌, 제주신화, 제주민요, 제주민속, 제주신앙, 제주굿, 제주고고학, 제주해양문화, 탐라사, 제주목축문화, 제주생활사 등
- 사회과학연구팀은 제주학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사회과학연구팀에 부여된 사회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4·3,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제주여성, 제주농어민, 제주노동자, 제주지역개발사, 제주사회운동사, 제주산업사, 제주도 기업가 및 기업, 재외제주인 연구, 제주다문화, 제주사회복지 등
- 자연과학 연구팀은 제주학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자연과학 연구팀에 부여된 자연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제주지질, 제주화산, 제주음식문화, 제주복식문화, 제주건축, 제주동물, 제주식물, 제주동굴, 제주수산, 제주기후, 제주감귤, 한라산, 제주원예, 제주수자원 등
- 제주학자료실은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내 정보자료실을 함께 이용하도록 함.
- 제주어 연구팀은 제주어 관련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제주어 연구팀에 부여된 제주어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제주어 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구축,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제주어 대중화 자료 개발 및 보급,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등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연구자체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제주학 관련 민간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 제주학 관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지원
 - 제주학 관련 총서 및 자료집 발간
 - 재외제주인의 의식조사
 - 제주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성 사업
 -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래 문화산업 육성방안 도출
 - 세계 섬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타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협력
 -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사업 수행

- 제주시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 제주학 진흥조례 제정
- 제주학 관련 중장기발전기금 확보

2) 연구인력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인력은 상근과 비상근 연구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상근인력은 센터장 1인, 연구원 3인(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연구팀별 1인), 연구보조원 3인(각 연구팀별 1인), 정보처리담당 1인으로 구성함.
- 비상근인력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이며, 각종 회의 및 의결사안 처리에 참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제주학연구센터 및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제주학 관련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함.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에 동의할 경우 관련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함.
- 제주학 관련 기존 성과물의 활용 증진을 위해 제주학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자료 이용을 공유함.

2. 재정투자 계획

가. 기본 방향

-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비 및 운영비 확보가 관건임.
- 단기적(2012~2016)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
- 향후 중·장기적(2016년 이후)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원과 기업가 등의 참여를 통한 ‘(가칭)제주학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자원조달 계획

1)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4,000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함.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	4,000	600	700	800	900	1,000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로 2016년 이후 매년 1,000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함.

2) 민간 출연 및 기금 모집

- 제주학연구센터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구성과의 의의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민간 출연 및 기금 모집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해서는 연구성과품을 발간할 때 기부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연구사업의 경우 제주학연구센터 및 관련기관의 참여 인건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동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함.

3) 수익사업의 발굴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구성과물 중에서 유료화 등을 통한 수익 사업을 창출함.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4,000	600	700	800	900	1,000
연구비	2,650	400	500	500	600	650
운영비	1,350	200	200	300	300	350
		인건비 150	인건비 150	인건비 250	인건비 250	인건비 300
		연구원 2인 보조원 1인		연구원 1인 보조원 1인		보조원 1인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VII. 정책제언

□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

- <제주학 연구센터는>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실천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게 되었음.
-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은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상 독립적인 연구기관 출범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 연구기관으로 전환될 때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학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지원의 기능을 수행함.
-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함.

□ 제주학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

- 제주학 관련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문·사회·자연 과학 분야를 단계적·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이 대두되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공성을 띤 제주학 연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의 정체성 정립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구기관 운영이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 제주학 연구를 위한 거점 공공 연구기관
 -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제주학 연구기반을 확충함.
- 제주학 연구단체 간 협력·지원을 위한 거점 센터
 -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연구기관간 협력과 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함.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출범하나,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센터가 독립기관으로 전환할 때까지 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함.
- 제주학 기초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토대 연구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세계자연유산의 섬에 대한 학문적·정신적·문화적 이론을 제공하게 될 제주학연구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 여건 조성
- 제주학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인력 지원
 - 향후 이 센터가 지향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민관협력형의 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

- 제주학 관련 연구소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거점 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출범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매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함.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에 따라 출범기를 지난 후 중간 점검(2015년)을 시행하고, 제주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어 보존 계승과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제주 고유문화의 세계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중점특화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제주어(제주방언)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점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주어연구소 설립의 토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제주어연구소의 독립 연구기관 설립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언어정책 수립이 필요함.
 -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서는 사라지는 언어 4단계로 인도의 ‘Koro어’와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제주사회에서 제주어의 육성·보존정책 수립이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재원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제주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함.
- 제주학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주학 진흥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 정립 필요

- 제주학연구센터가 출범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본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제주학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참고자료

- 고석규(2005), “한국학과 지방학”,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 金田章裕·최중섭(2004), “일본에서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안동학연구』 제3집, 한국국학진흥원, 47-94.
- 김창민(2007), “지역학의 관점에서 본 전주학의 개념과 방법”, 『전주학연구』 창간호, 전주역사박물관.
- 김태만(2004),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 上海學을 통해서 본 釜山性 연구-釜山·上海간 海洋都市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中心으로”, 『中國現代文學』 제29호, 韓國中國現代文化學會, 309-350.
- 박진태(2006), 『전북 지역문화의 재인식』, 대구대학교 출판부.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5), 『2003~2012 부산학 중·장기 연구사업』.
- 설석규(2007), “지역학 연구의 사상사적 방향 : 조선시대 사람의 사상적 분화와 지역학”, 『전주학연구』 창간호, 전주역사박물관.
- 역사문화학회(2008), 『지방사 연구입문』, 민속원.
- 염미경·한석지(2007),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 『濟州島研究』 제30집, 濟州學會, 91-123.
- 울산발전연구원(2006), 『울산학연구센터 사업계획(안)』 .
- 俞 浣(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地域研究』 제1권, 한국지역학회, 3-7.
- 유철인(1996), “지역연구와 제주학” 『濟州島研究』 제13집, 濟州學會, 33-52.
- 이춘근(2006), “대구경북학의 연구방법론 서설”, 『대구경북개발연구』 제1집, 대구경북연구원, 347-373.
- 이해준(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이해준(2007),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전주학연구』 창간호, 전주역사박물관.
- 전경수(1998),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濟州島研究』 제15집, 濟州學會, 7-26
- 전경수(2000), 『문화의 이해』(개정판), 을유문화사.
- 전주역사박물관(2007), 『전주학 중단기 발전 기본계획』.

- 최효선 옮김(2000),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 충남발전연구원(2005),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 충청북도(2002), 『통일시대 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
- 한기범(2006), “지방화시대 지역학의 동향과 인문학적 과제”, 『대구경북개발연구』 통권 제52호, 대구경북연구원, 87-89.
- 한창훈(2008),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耽羅文化』 제33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33-50.
-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길언(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 문학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35-51.
-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 洪性雄(1985), “지역학의 본질과 과제”, 『地域研究』 제1권, 한국지역학회, 9-13.
- (財)山形縣生涯學習文化財団(2000), 『全國地域學ハンドブック』.
- 彩の國さいたま人づくり廣域連合(2008), 『平成20年度行政課題研究 「地域學の可能性」』.
- 早稻田大學「琉球・沖繩研究所」 홈페이지.
- Garnsey, Morris. E.(1956), The Dimensions of Regional Scienc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
- Isard, Walter(1956), Regional Science, The Concept of Region and Regional Structur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
- Isard, W., and Reiner, Thomas A.(1966), Regional Science : Retrospect and Prospect,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16.

부록 1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위원회의 참석자 및 회의 결과

□ 일 시

- 1차 : 2011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2차 : 2011년 5월 13일(금), 오후 3시~5시
- 3차 : 2011년 8월 29일(월), 오후 4시~6시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3회)

□ 자문위원회의 참석자

○ 1차 자문위원회의 참석자(2/22)

-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수/제주학회 회장)
- 박찬식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책임연구원)
-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교수)
-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소장)

○ 2차 자문위원회의 참석자(5/13)

-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수/제주학회 회장)
- 김철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소장)
-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 오창명 (제주학연구소 소장)
-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소장)
- 조선희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기획팀장)
- 현태용 (한국문화원 제주지회 사무처장)

○ 3차 자문위원회의 참석자(8/29)

- 장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 고재환 (제주어보존육성위원회 위원장)
-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
- 김은석 (제주대학교 교수/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김철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소장)
-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광위원회 위원장)
-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소장)
- 윤정웅 (제민일보 논설실장)
- 장제근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 조선희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기획팀장)
- 함성중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 현태용 (한국문화원 제주지회 사무처장)

□ 자문위원회의 결과(3회)

1. 제주학연구센터의 목적 및 필요성

- 제주학이 사멸 위기에 있음.
- 인문·사회·자연(해양)을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필요함.
-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주학 연구기반 확충이 필요함.

2.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 추진 방향
 - 제주학 연구의 구심체 역할 및 문화지수 향상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 제주의 인문·사회·자연 과학 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함.
- 제주학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 방법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역할

- 제주학 연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거점 연구기관
- 지역학 정립을 위한 협의 기능
- 기존 연구기관과 차별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고,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협력 기능
-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제주학 연구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3. 제주학의 범위

- 지역학의 개념 정리
- 제주학의 개념 정리
- 제주지역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 문화자원, 자연과학 등을 모두 아울러서 연구
- 탐라문화권 정비사업
- 세계문화유산 관련 사업
- 해녀 관련 연구사업
- 제주어 관련 연구사업 및 제주어 표기법 제정 필요
- 제주학 관련 단기·중기·장기별 연구사업 발굴·추진

4.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방안

- 도내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제주학 관련 자료를 수집·구축하여 정보 공유 기회 제공
-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인적인프라 구축
- 제주학 관련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교류 기회 제공

- 제주학연구센터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별하여 추진
- 도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관심 제고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ID

--	--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학 진흥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제주학연구센터)을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설치함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학연구센터 출범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국제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실증조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 역할, 기능 및 사업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1.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해당되는 번호의 괄호 안에 ✓해 주십시오.)

- () ① 제주학연구센터가 직접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능
- () ②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
- () ③ 위의 ①과 ② 병행
- () ④ 제주학 연구를 위한 인적·물적·자료 축적과 활용 인프라 구축
- () ⑤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2. 제주지역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학연구단체(연구기관, 학회, 연구소, 연구모임 등)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1) 연구인력	①	②	③	④	⑤
2) 연구재정기반	①	②	③	④	⑤
3) 지원예산	①	②	③	④	⑤
4) 연구공간	①	②	③	④	⑤
5) 연구단체간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6) 연구성과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연구 여건	①	②	③	④	⑤
8) 대형연구과제 수행 역량	①	②	③	④	⑤
9) 공공기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10)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11) 연구단체 소규모화	①	②	③	④	⑤
12) 연구영역 중복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 항목 중 제주학 연구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연구인력 문제	② 연구재정기반 문제	③ 지원예산 문제
④ 연구공간 문제	⑤ 연구단체간 소통 문제	⑥ 연구성과 문제
⑦ 공동연구 여건 문제	⑧ 대형연구과제 수행 역량 문제	
⑨ 공공기관의 관심도 문제	⑩ 기초자료 집적과 서비스 문제	
⑪ 연구단체 소규모화	⑫ 연구영역의 중복	
⑬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4.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5)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_____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 항목 중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제주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 ② 제주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
- ③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 ④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 ⑤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시스템 구축
- 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 ⑦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6. 귀하께서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 항목 중 제주학연구센터의 세부적인 기능과 주요 업무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 ②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집적기관
- ③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④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 ⑤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 ⑥ 제주학 관련 공모사업 추진
- ⑦ 세계 섬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⑧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협력
- ⑨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조례 제정
- ⑩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7.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공통 연구사업’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공히 아우르는 연구사업) 항목들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 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수행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①	②	③	④	⑤
4)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①	②	③	④	⑤
5)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①	②	③	④	⑤
6)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 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7)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①	②	③	④	⑤
8)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_____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다음의 ‘공통 연구사업’ 항목들에 대하여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 ②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국책사업 등) 수행
- ③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수행
- ④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 ⑤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 ⑥ 제주문화 원형 발굴조사, 보존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 ⑦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 ⑧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 ⑨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9.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인문학 분야 관련 연구 사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제주어 연구	② 제주고문헌 연구	③ 제주신화·설화연구
④ 제주민요 연구	⑤ 제주민속·신앙 연구	⑥ 제주고고학 연구
⑦ 제주해양문화 연구	⑧ 탐라사 연구	⑨ 제주문학 연구
⑩ 제주목축문화 연구	⑪ 제주인문지리 연구	⑫ 제주인물사 연구
⑬ 제주문화사 연구		
⑭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12.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해당되는 번호의 괄호에 ✓해 주십시오.)

- () ① 국비 () ② 지방비 () ③ 후원금
() ④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질문별로 해당 번호의 ()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의 직업은?

- () ① 대학교수 () ② 언론인 () ③ 연구직
() ④ 교사 및 공무원 () ⑤ 정치인
() ⑥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4. 귀하의 학력은?

- () ① 고졸 () ② 대졸
() ③ 대학원 석사(석사과정 이수 중/수료 포함)
() ④ 대학원 박사(박사과정 이수 중/수료 포함)

15. 귀하의 관심분야는?

- () ① 인문학 () ② 사회과학 () ③ 자연과학
() ④ 기타 : _____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6. 귀하의 연령은?

() ① 30대 () ② 40대 () ③ 50대 () ④ 60세 이상

17.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 문화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학'이란 제주도라는 독특한 자연적·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연구센터'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학문 분야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자체·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학 연구 기반 확충
2.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기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센터에 납부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 대학교수 및 전문가 4명,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수
	황석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박찬식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고광명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연구보조	송경미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고민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2 ~ 2016)

발행일 || 2011년 9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